

第144回國會

5·18光州民主化運動 會議錄
真相調查特別委員會

第 17 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8年12月8日(木)
場 所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室(145號室)

議事日程

- 1. 5·18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糾明을 위한 聽聞會

審査된 案件

- 1. 5·18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糾明을 위한 聽聞會 1面

(零時 開議)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第17次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까.

- 1. 5·18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糾明을 위한 聽聞會

○委員長 文東煥 議事日程 第1項 5·18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糾明을 위한 聽聞會를 上程합니다.

계속해서 訊問해 주십시오.

○朴泰權委員 예. 감사합니다.

證人께 물겠습니다.

최초에 忠正作戰指示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부분중에 作戰內容 아까 證人께서 證言하시기를 정말 그동안 모든 訓令的인 내용으로 내려오지를 않고 모든 것이 大隊나 中隊에 어떤 命을 지시하는 것처럼 내려온다고 그랬었는데 이 忠正作戰指示 만큼은 本委員이 불 적에 正式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어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證人께서 기억하고 있는 대로 한두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證人 尹興禎 忠正計劃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또 그 文書를 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朴泰權委員 그럼 證人의 參謀들이 접수해서 거기에서 모든 處理를 했습니까?

○證人 尹興禎 아니 제가 보았지요. 제가 아까 大隊長한테 준다는 얘기를 한 것은 그 후에 여러가지 내려오는 指示들이 정말 제가 받기에는 너무도...

○朴泰權委員 제가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資料의 調

査에 의한 것 같으면 중요한 세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示威鎮壓할 때 小規模部隊라 할지라도 그 責任者는 領官將校以上으로 해야 되겠다 맞지요?

○證人 尹興禎 예.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朴泰權委員 그 다음에 學校占領은 18日4時까지로 指示가 1次 내려왔다가 1時間後에 2時까지 學校占領을 部隊配置를 완료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기억이 납니다.

○朴泰權委員 이런 指示를 하면서 특수한 任務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압니까?

○證人 尹興禎 특수한 任務附與입니까?

○朴泰權委員 그것 기억이 안 나시지요?

○證人 尹興禎 예.

○朴泰權委員 불순분자를 全員 색출해서 연행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지요?

○證人 尹興禎 예.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8年 前의 일을 그렇게 기억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순분자들을 全員 색출하라고 했을 때 名單이 내려왔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 名單은 保安隊系統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朴泰權委員 예. 맞습니다. 保安司에서 그 名單이 제시됐었죠?

그래서 불순분자들을 全員 連行하는 作戰을 2時부터 전개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證人 尹興禎 예.

○朴泰權委員 그런데 그 결과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떤 資料를 찾아봐도 얼마만큼 진행했는지 그 결과를 우리가 맞혀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證人께서 기억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불순분자의 연행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證人 尹興禎 정확한 數字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기대했던 이하였다 하는 것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空輸部隊가 學校에 들어가면서 學校에 있었던 學生들도 많이 연행했는데 그러나 대부분을 저는 歸家시켰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朴泰權委員 그 연행해 온 사람들을 證人께서는 직접 대하거나 訊問하거나 관계하지는 않겠지요? 다 밑에 參謀들 내지는 特殊部隊 要員들이 다 담당해서 한 것이지요?

○證人 尹興禎 예.

○朴泰權委員 그런데 그후에 戒嚴軍을 增加配置하면서 證人께서 配置할 때 戒嚴軍에게 특수한 命令이나 또는 어떤 任務를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세가지 項 이외의 任務를 추가로 指示해 준 적이 있습니까?

오늘 證人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게 해야 된다 여러가지 정말 老軍人다운 그러한 면모를 오늘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證人이 光州의 어떤 學生들의 示威 또는 여러가지 情況으로 보아서 또 空輸部隊라는 특수한 인원들이 증가되어서 배치되는 상황을 보고 또 上級部隊에서 내려오는 여러가지의 그런 지시 命令이 내려왔을 때 證人으로서 그 당시 상당한 重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이 생각할 적에 軍의 여러가지 軍기상 軍命令上 여러가지로 보아서 그 部隊 要員들에게 示威鎮壓에 있어서 어떤 특별하게 下命 즉 命令이나 또는 어떤 임무를 주신 것이 있으신가?

○證人 尹興禎 上部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移牒下達을 했읍니다마는 그 내용이 아까 잠깐 말씀했읍니다마는 여러가지가 있고 너무도 세밀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또 거기에 제 의견들을 붙이면 隸下指揮官이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떤 指

針을 내려보낸 것은 없다고 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軍官民協調對策會議에서 그 苛酷行爲를 하지 말라 신사적이라는 말을 제가 썼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 이런 지시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朴泰權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령이나 임무 外로 示威鎮壓을 나가는 兵力 즉 戒嚴軍들에게 장비나 또는 복장이나 탄약에 관련된 사항을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러한 장비나 탄약이나 이러한 支援問題는 그것은 거의 저희 司令部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部隊自體 또는 2軍에서 그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朴泰權委員 예. 알겠습니다.

證人께 다음 또 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5月20日의 상황을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께서 戰敎司 司令官으로서 5月18日 光州抗爭鎮壓時 特戰司의 실질적인 隸下部隊들이 證人의 麾下로 들어오고 또 證人이 그런 어떤 上部의 命令이나 本人의 의사를 移牒 부하들에게 해서 光州의 5月20日 상황까지 끌고왔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答辯해 주시길 바랍니다.

20日 12時頃에 鄭鎬溶 당시 特戰司令官이 방문했었지요?

○證人 尹興禎 저희들이 對策會議를 하고있었을때...

○朴泰權委員 그것이 끝났을 무렵에 도착했지요?

○證人 尹興禎 예.

○朴泰權委員 그런데 그때 鄭鎬溶 特戰司令官이 혼자 왔었습니까? 누가 따라 왔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參謀들을 대동했을 것입니다.

○朴泰權委員 대개 參謀들이 特戰司의 參謀가 대개 副司令官이 있겠고 人事參謀있고 軍需參謀가 있고 또 情報參謀가 있고 그런데 그분들 다 일일이 기억 못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作戰參謀하고 같이 안왔습니까?

○證人 尹興禎 아까 鄭鎬溶證人이 軍需參謀를 帶同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朴泰權委員 그것은 25日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現地에 내려가보니까 便衣隊가 필요해서 便衣服이라든지 등을 구입차 軍需參謀를 대동했다는데 그날 作戰參謀가 帶同 안되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기억이...

○朴泰權委員 기억이 안납니까? 張世東씨 아십니까?

○證人 尹興禎 제가 직접은 모릅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그 당시 鄭鎬容 司令官이 왔을 때 그 參謀들도 會議場안에 다 따라 들어 왔습니까?

○證人 尹興禎 아마 본인만 왔을 것입니다.

○朴泰權委員 司令官만 들어왔겠지요?

당시 特戰司令部的 作戰參謀는 張世東 作戰參謀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證人 어느 部隊를 막론하고 독립되어있는 部隊의 指揮官下에는 參謀가 있습니다.

그 部隊內에 모든 作戰은 누가 담당합니까?

○證人 尹興禎 作戰參謀의 보조를 받아서 指揮官이 하죠.

○朴泰權委員 그렇죠 모든 計劃이나 어떤 가상적인 모든 문제에 따르는 그 部隊의 指揮官이 命命을 발휘하고 또 部隊의 어떤 隸下 兵力들에게 임무를 주기 위해서는 作戰參謀의 構想下에서 補助要員들과 같이 이런 문제를 처리해서 指揮官에게 建議하거나 指揮官의 決裁를 받아서 下級部隊에 命命을 下達하는 것이지요?

○證人 尹興禎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리고 戒嚴軍들이 戒嚴司令部에서 어떤 命命을 내릴 때도 戒嚴司令部에 있는 作戰參謀部長이 그 필요한 部隊의 指揮官 밑에 있는 作戰參謀하고 사전에 모든 協議를 한다고 보아야겠지요.

○證人 尹興禎 그것이 통상이지요.

○朴泰權委員 그렇다고 하면 지금 光州에 파견되어 있던 일부 旅團 또는 서울을 비롯한 全國에 파견되어 있던 많은 空輸特戰旅團의 隸下部隊에게는 特戰司令部的 作戰參謀가 많은 부분을 기안 企劃해서 하달했다고 봐야겠지요?

○證人 尹興禎 그렇지요.

○朴泰權委員 그런데 그날 만났을 때에 특별

하게 상의한 적은 없습니까?

○證人 尹興禎 특별히 상의한 기억은 없습니다.

○朴泰權委員 무슨 협조를 구한 것이 없습니까? 조언 한 것도 없습니까? 이런 말이라도 했었겠지요 司令官으로서 자기 휘하의 士兵 將校들을 部下들을 配屬시켜놓았기 때문에 잘좀 부탁한다든지 잘좀 보살펴주라든지 급식이라도 잘 해주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라도 했었겠지요?

○證人 尹興禎 예. 그런 얘기는 했지요.

○朴泰權委員 다른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습니까?

○證人 尹興禎 다른 이야기를 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朴泰權委員 기억이 안나신다니까 더이상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資料에도 그런 문제가 써 있지 않습니다.

○證人 尹興禎 8年前의 일이라서 기억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기록이 있으면 또 그것을 보면 연관시켜서 어떤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데요.

○朴泰權委員 그러면 戒嚴分所長 任務를 마칠 때까지 그곳에 國務委員중에서 누구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朴忠勳署理하고 柳陽侏建設 金鍾煥內務 陳懿鍾交通...

○朴泰權委員 내려왔을 때마다 光州의 모든 현황을 보고하셨겠지요?

○證人 尹興禎 「덤」으로...

○朴泰權委員 그 당시 戒嚴司令官이나 保安司令官 이런 분들이 電話로 무슨 상황을 물었다든지 무슨 특별한 요청이 있었다든지 어떤 협조를 구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戒嚴司令官하고는 제가 電話를 자주했습니다.

○朴泰權委員 기억이 분명히 남는 것 戒嚴司令官 하고 通話를 한 것이 있으면 하나정도 밝혀 주세요.

○證人 尹興禎 그것은 20日 12時頃에 밤에 示威가 점점 가열되고 그리고 道廳을 목표로 해서 자꾸 示威者가 모여든다 라는 상황하에서 戒嚴司令官한테 報告를 해서 이 道廳을 확보할 값어치가 있는 것이냐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것을 쾌히 승락을 해주더구만요.

撤收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撤收를...

○朴泰權委員 證人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道廳에 示威隊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여러가지 행동으로 보아 군이 軍人이 끝까지 방어할 필요가 없고 流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建議를 드렸겠지요. 그러니까 戒嚴司令官도 그것이 좋겠다고 하셨겠고...

○證人 尹興禎 예.

○朴泰權委員 그런데 조금 돌아갑시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을 자주 상의하기 위해서 證人이 事務室에서 모일 때 물론 道知事를 비롯한 行政機關의 長들도 만났겠고 또 指揮官들도 참석을 했겠습니까마는 中央情報部에서 파견되어 있는 調整官하고 保安司令部的 保安隊員하고는 꼭 그자리에 참석을 했었지요? 地域責任者들이...

○證人 尹興禎 保安隊長은 가끔왔습니다.

○朴泰權委員 중요한 상의를 할 때

○證人 尹興禎 상의는 안했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가끔 와서 地域擔當者로서 意見陳述이라든지 무슨 현황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많이 논의를 했었지요? 있었던 일을 상의한다든지 시국에 대한 이야기...

○證人 尹興禎 제가 상의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럼 報告하러 온 것입니까?

○證人 尹興禎 예. 무슨 報告...

○朴泰權委員 그 당시 保安司令官으로부터 연락이 왔었겠지요?

○證人 尹興禎 保安司令官한테 제가 직접 전화 통화한 일은 없습니다. 만난 일도 없고...

○朴泰權委員 뭐 특별히 별도의 保安司令部組織을 통해서 무슨 지시 받은 것도 없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런 지시 기억이 없습니다.

○朴泰權委員 없습니까? 그런데 本委員이 이제 配置關係에 대해서 묻는데요? 이제 문제는 市民하고 示威를 진압하는 그 戒嚴軍하고 충돌이 일어난게 가장 큰 문제인데 처음부터 光州市內에 示威의 원인에 의해서 많은 兵力이 많은 示威와 대치해서 막는 식이 아니고 그 작전에 의해서 거의 光州一圓의 여러 據點 그 사거리마다 兵을 배치시켜서 그 市民들에게 많은 자극을 준 것도 하나의 문

제로 보고 있으요 그 다음에 逐次的配置라는 것 다 아시겠지요?

○證人 尹興禎 逐次的 配置요?

○朴泰權委員 逐次的配置...

○證人 尹興禎 逐次的配置...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배치한 다는 것이요?

○朴泰權委員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7空輪2個大隊가 들어오고...

○證人 尹興禎 아! 逐次的投入!

○朴泰權委員 예. 逐次的投入 그렇게 하다 보니까 市民들이 불매에는 몇日 전만해도 경찰이 어떤 금남로면 금남로 광장이면 광장만 示威鎮壓하는 그러한 隊들이 보였는데 갑자기 어느날 光州市內에 全部隊가 배치 되었었고 그것도 복장도 달라지고 하는 행동도 달라지고 했다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하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자꾸 더 증가 배치 되었다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많은 市民에게 學生에게 자극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證人 尹興禎 그랬을 것입니다.

○朴泰權委員 그랬을 것입니까? 확실히 그랬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證人 尹興禎 뭐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사실에 확실하다 하는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朴泰權委員 그러니까 市民하고 學生들이 어떤 울분이나 자기들이 주장하는 구호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에 뭔가 충분하게 되고 더 감정을 갖게 된 것은 틀림없지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신다면 틀림없는 것이지요?

○證人 尹興禎 그렇게 단정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렇다면은 證人이 지금까지 證言한 문제의 많은 좋은 答辯이 많이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證人 尹興禎 그것은 사실을 제가 생각하는 대로...

○朴泰權委員 저의 느낌은 그럴 것 같다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아도 괜찮지요?

○證人 尹興禎 그럴수도 있다 예 좋습니다.

○朴泰權委員 괜찮지요? 저는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다음 質問하겠습니다. 그 당시 學生들이나 市民들이 합세해

서 외치던 구호가 뭐였습니까?

○證人 尹興禎 초기에는 주로 戒嚴撤廢 그 다음에 金大中釋放 全斗煥물러가라 이런 정도였습니다.

○朴泰權委員 예. 그렇습니까?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發砲關係에 대해서 좀 한번 證人에게 訊問하겠습니다. 證人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최초의 발포는 어디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십니까? 어느 部隊가 배치되어 있는 곳 또는 어느 場所 아니면 그것이 기억이 어려우시면 死亡者를 기준으로해서 이야기 해 주셔도 좋습니다.

○證人 尹興禎 제가 그 당시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聽聞會를 통해서 여러가지 證人들이 證言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또 제가 본 書籍 刊行物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20日 저녁에 3空輸쪽에서 총을 쏘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현재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朴泰權委員 光州驛 근방이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朴泰權委員 그것은 公式發表에 나온 것을 상당히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요. 이 당시 示威鎮壓하는 戒嚴軍들이 實彈을 처음부터 지급을 받고 나갔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朴泰權委員 報告받은 바도 없습니까?

○證人 尹興禎 보통 軍에서는 實彈을 몇 발을 가져와라 어떻게 하라 하는 實彈에 관한 統制는 지의 지식으로는 聯隊長級들이 그걸 ...

○朴泰權委員 그런데요 그 示威部隊들이 指揮系統을 통해서 實彈支給 要請이 들어 왔었지요?

○證人 尹興禎 저한테는 안들어 왔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21日 戒嚴司令部가 어떤 警告性있는 自衛權發動을 행사하겠다는 警告가 나오기 전에 총소리가 난 것은 틀림없고 또 이런 資料에도 死亡者가 나고 부상자가 났던 것도 인정하시고 그런데 그 自衛權 警告가 나오기 전부터 道廳앞에서 集團發砲가 있었는데 공중에 위협 사격입니다. 國旗를 하강하

는 時間에 國旗下降과 愛國歌가 끝난 다음에 그러한 集團威脅發砲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證人 尹興禎 그러니까 下降式이면 17時입니까?

○朴泰權委員 글썽 저도 그 時間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7時로 봐야 되겠지요.

○證人 尹興禎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報告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朴泰權委員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資料에 보면 그 문제가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訊問한 것입니다. 國旗下降式이라면 대개 5月로 봐서는 17時나 18時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資料에 戰敎司資料 陸本에서 提出한 資料에 보면 13時30分頃에 集團發砲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가지 資料를 맞추어 보다 보면 國旗下降式때 愛國歌가 끝나자마자 集團發砲가 있었다고 그래서 일치되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혹시 證人께서 그런 것을 기억하는지? 그렇다면 이미 21日 1時30分 이전에는 本委員이 조사한 바로는 그당시 空輸部隊要員들은 1個中隊씩 배치하는데 中隊長에게 10發의 實彈을 주었습니다. 이걸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集團發砲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다량의 實彈이 지급된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지급했거나 사전에 基本裝備彈藥裝備로 가지고 다녔거나 그렇지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지요?

○證人 尹興禎 예.

○朴泰權委員 이것 한가지 訊問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 21日 새벽 2時頃에 말이지요 31師團에서 특수한 장비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화염방사기 小隊의 出動을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이것 기억나십니까? 아까 말씀 證言중에 화염방사기에 색소를 타서 옷에 묻게 해서 犯人을 색출한다 이걸 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날은 무려 市內에서 화염방사기가 10餘臺이상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화염방사기 小隊出動을 요청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證人 尹興禎 기억이 없습니다.

○朴泰權委員 이것은 왜 제가 訊問하느냐 하면 21日 2時 새벽 두시에서 세시 사이라면

20日 밤에 約 拾萬群衆이 모였다 그때까지 時間이 되어서 판가 과열되어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염방사기를 요구했고 이런 特殊小隊까지 出動要求를 했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證人 尹興禎 예.

○朴泰權委員 時間이 다 되었다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證人이 아까 軍의 名譽스러운 任期를 마치지 못하고 政府의 國務委員 즉 長官으로 가는 것이 서운한 인상을 남기면서 答辯해 줬습니다. 속직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訊問하겠습니다. 長官으로 천거했다든지 추천했다든지 또 入閣하게 되었다고 通報해 줬다든지 하는 분이 누구지요?

○證人 尹興禎 李煥性戒嚴司令官입니다.

○朴泰權委員 뭐라고 말하면서 入閣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줬습니까?

○證人 尹興禎 入閣을 하는 것이 어쩌나 이렇게 勸告를 했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래서 뭐라고 答辯했습니까?

○證人 尹興禎 지금 이러한 중요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수습을 해야 될텐데 내가 수습은 해야 되기 때문에...

○朴泰權委員 그래도 戒嚴司令官께서는 入閣되었다...

○證人 尹興禎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습하는 것보다는 入閣이 더 중요하다...

○朴泰權委員 중요하다... 證人! 그러면 5月 17日을 기해서 全國非常戒嚴의 擴大는 戒嚴의 指揮體系가 大統領에서 戒嚴司令官으로 2軍으로 戒嚴分所長에서 이어지는 指揮體系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戒嚴司令官은 지금 證人이 證言한 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改閣하는 것이 더 그 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地域戒嚴일 때는 國務委員의 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國防部長官의 손에서 떠나 軍의 指揮體系는 지금 李煥性戒嚴司令官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그렇게 단정합니다. 더불어 그 당시 많은 5·18光州民主化抗爭의 그 결과를 두고 軍들은 여하튼 그 당시 오관을 했던 잘못 판단했던 많은 분들이 勳·褒章을 받았습니다. 證人은 왜 못받았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尹興禎 아까 鄭鎬溶證人께서 말씀하시기를 옷을 벗었기 때문에 豫編해서...

○朴泰權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예를 제가 대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정리해 주세요.

○朴泰權委員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國會에 제출해준 資料 國防部에서 나온 勳·褒章記錄의 79年度부터 81年5月30日까지 있는 記錄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全斗煥前大統領은 제일 마지막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언제나하면 80年8月22日 10·26事態後 國基保全에 공헌하여 최고의 勳章인 太極武功勳章을 수여했습니다. 바로 大將으로 豫編되던 날 줬습니다. 그러면 證人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光州事態의 鎮壓의 功을 인정해서 勳·褒章을 줬다면 證人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證人 尹興禎 現役때에 추천을 해줬으면 豫備役이 되었다 하더라도 勳章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朴泰權委員 정말 委員長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문제 하나만 묻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民主黨 다른 委員에게 맡기시지요. 여러차례 지났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옆에 있는 李委員한테 부탁하시지요. 벌써 여러차례 이렇게 되었으니까...

○朴泰權委員 존경하는 同僚委員 여러분! 제가 모든 「물」을 제일 스스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光州의 證人이 최후까지의 任務를 다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過剩鎮壓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市民과 學生의 주장이 너무 過熱되었다고 보십니까? 둘중의 한가지만 선택해서 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證人 尹興禎 過剩鎮壓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또 크게 나왔고 하기 때문에 過剩鎮壓이라고 볼 수 있지요.

○朴泰權委員 그러면 過剩鎮壓이라는 말부터 먼저 해주신 것을 答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民主正義黨의 辛卿植委員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訊問時間은 20分으로 되어

있습니다.

○辛卿植委員 民正黨 辛卿植委員입니다.

제가 지금 質問에 앞서서 議事進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는 지금 時間關係上 제 質問으로 배당된 時間을 활용해서 먼저 議事進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本 光州聽聞會는 全國에 TV로 生中繼가 되고 있어서 4千萬國民이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光州真相調査에 임하는 우리 特委 委員의 發言 및 一舉手一投足은 國家와 民族은 물론이요 國會 政府 議員 個人 그리고 關聯特定人的 名譽와 生死를 좌우할 만큼 책임과 영향이 지금 막중한 형편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 동안 光州特委 進行過程에서 惡性流言蜚語 확인되지 않은 所聞 사실을 立證하지도 못 할 내용을 가지고 무수한 사람의 人權과 귀중한 名譽를 얼마나 훼손하였는가를 확실한 證據를 갖고 이 자리에서 또 하나 提示하고자 합니다. 일부 野黨政治人들의 無責任한 發言 무자비한 人身攻擊은 憲法에 따라 基本權이 보장되어야 할 선량한 國民의 名譽와 人權이 희생되고 또 짓밟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與野가 合意한 憲法과 與野가 참여한 大統領選舉 總選에 따라 合憲 合法的으로 國民의 直接選舉에 의해서 選出되고 政治的으로 이미 國民의 심판을 받은 國家元首인 大統領選舉 總選에 따라 合憲 合法的으로 國民의 直接選舉에 의해서 選出되고 政治的으로 이미 國民의 심판을 받은 國家元首인 大統領을 확실한 證據와 立證할 資料도 없이 人身攻擊과 冒瀆的인 無責任한 發言으로 反亂 內亂 云云 함으로써 國會의 權威와 國會議員의 品位를 실추시킨 사례가 연일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平民黨의 李海瓚委員께서 조금전에 武裝共匪를 逮捕 射殺한 寫眞을 光州事態때 空輸部隊가 光州市民을 無差別虐殺한 寫眞인양 證人에게 提示한 사실은 이미 同僚 鄭昌和委員에 의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李海瓚委員께서는 또 盧泰愚大統領께서 80年 당시 首都警備司令官으로 在職할 당시에 國會를 警備한 部隊의 指揮官인 양 사실을 糊塗하며 獨斷的인 편견으로 內亂 反亂이라는 概念을 확정하여 이를 無責任하게 바로 이 特委에서 發言하였고 그

사실은 全國的으로 中繼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를 本委員이 확실한 證據를 가지고 지금 提示해 드리겠습니다. 國防部가 本 特委에 提出한 陸軍本部作戰狀況日誌 바로 이 陸本作戰狀況日誌입니다. 여기에 一連番號 1667 1980年5月20日 上午 11時 그 狀況內容을 보면 首都軍團狀況 10時15分 新民黨 國會議員黃珞周外 37名 新民黨員 및 記者團 300餘名 國會議事堂에 進入코자 하였으나 10時40分 閔寬植國會議長이 現場出頭解散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首都軍團狀況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寫本資料를 모두 드리겠습니다. 이미 國會에 이 資料가 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이 확실한 證據로서 당시 國會의 戒嚴軍으로 運營된 兵力은 首警司가 아닌 首都軍團隷下兵力임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本委員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戒嚴指揮系統과 管轄地域은 首警司는 陸軍本部 戒嚴司令部의 直接指揮를 받아 漢水以北首都圈地域을 管轄했고 首都軍團은 3軍司令部隷下部隊로서 3軍司令部戒嚴事務所의 直接指揮를 받아 汝矣島를 포함한 漢水以南首都圈地域과 일부 京畿道地域을 管轄했습니다. 그 때에 國會의 警戒兵力으로 배치된 部隊는 首都軍團隷下 33師團兵力이었다는 사실은 首都軍團 80年 部隊史 203「페이지」에 記錄으로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李海瓚委員께서는 國防部에서 本 光州特委에 提出한 資料에 隱연히 首都軍團狀況日誌속에 記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首警司 33師團이라고 단정을 하고 4千萬은 國民이 지켜보는 TV生中繼聽聞會發言에서 虛偽事實을 마치 사실인양 糊塗함으로써 國民들에게 크나큰 誤解를 남게 했습니다.

國家元首의 權威와 名譽 人格을 무자비하게 훼손한 과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직접 發言한 李海瓚委員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우리 民主正義黨은 이와같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委員長이 적절하게 措置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一方的이고 偏頗的으로 운영된 特定政黨의 黨利黨略에 따라 좌우되는 本 特委運營이라면 더 이상 이 特委에 참여한 의의가 없다고 밝히지 않을 수가 없

입니다.

아까 李海瓚委員께서 사실이 사실대로 確認되면 정정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이 確認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措置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發言時間을 이용해서 지금 議事進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發言도 계속을 하겠는데...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委員長 文東煥 예. 發言時間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쭙어 보는 것이예요. 李海瓚委員이 여기서 答辯하게 되면 시간이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辛卿植委員 그 殘餘時間은 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李海瓚委員 말씀하세요.

○李海瓚委員 지금 辛卿植 同僚委員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本委員이 앞서 李敏燮委員의 그러한 發言이 있을 적에도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戒嚴狀況日誌 國防部에서 提出하는 資料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陸軍本部の 作戰日誌가 있고 戒嚴司令部的 戒嚴狀況日誌가 있고 여러 日誌가 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戒嚴狀況日誌입니다. 戒嚴司令部的... 당시의 戒嚴을 모든 것을 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光州特委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資料를 토대로 해서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戒嚴狀況日誌에는 5月19日 11時35分이후 狀況부터 5月20日 午後 11時이전 狀況까지가 네個 項目이 빠져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項目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國會에서의 어느 兵力이 國會의 機能을 정지시켰는가를 確認할 수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本 特委의 첫날 李熿性證인이 參席했을 적에도 本委員이 그 寫眞을 보여 주면서 이 部隊가 어느 部隊냐고 분명히 제가 물어 보았었습니다. 그때 李熿性證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首警司兵力인지 어느 兵力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隸下部隊의 兵力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寫眞을 보여 주면서 이것이 어느

兵力이나 그러니까 隸下部隊의 兵力이라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로 特委가 進行되기 때문에 그 部隊가 어느 部隊인지 本委員도 確認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다른 特委日程이 바빠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戒嚴司令官이었고 陸軍參謀總長인 李熿性 戒嚴司令官도 몰랐던 그 部隊의 부분을 아직까지 確認하지 못한 상태에서 本委員이 오늘 그와같은 質問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答辯하기를 그 部隊가 首都軍團部隊라고 한단니까 그러면 그 部隊가 과연 首都軍團部隊인지 그리고 首警司와 作戰指揮系統이 어떻게 되는지를 確認해서 盧泰愚씨가 관계가 없다 라면 저는 추후도 그것을 가지고 盧泰愚씨에 관해서...

○安榮基委員 盧泰愚大統領이예요.

(場內騷亂)

○李海瓚委員 좋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가지고... 추후도 제가 그것을 가지고 비방할 의사가 없다 라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場內騷亂)

○委員長 文東煥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速記錄을 보고 決定합시다.

○李海瓚委員 速記錄을 보고 얘기하시고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確認이 되면 추후도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確認이 된다면 解明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辛卿植委員이 그것을 가지고 確認을 했다 라고 지금 議事進行 發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다고 라고 한다면 本委員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確認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 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意見을 듣고 얘기하세요. 9師團長으로서 兵力을 休戰線에 있는 兵力을 서울로 移動한 部分은 역시 그것도 下剋上입니다.

○李肯珪委員 왜 탄 얘기를 해요.

○李海瓚委員 그것도 下剋上이기 때문에 本委員이 두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國憲을 문란하는 行爲로서 두가지를 지적했는데 9師團으로서의 部隊移動을 한 것...

(場內騷亂)

○委員長 文東煥 조용하세요! 얘기 發言하는

것은 다 듣고서 얘기하세요. 發言하는 것 다 듣고 하세요!

(場内騒亂)

發言權을 받은 사람이 다 한 다음에 반박할 것있으면 반박하세요.

○李海瓚委員 光州特委를 성실하게 運營하려면 發言權을 준 사람의 發言얘기를 다듣고 異議가 있으면 또 지적하시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 討論의 基本常識입니다.

○安榮基委員 그러면 계속 光州特委하지 않고 이것만 하자는 얘기입니까?

○委員長 文東煥 아 글썽 여기에서 問疑를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對答하는데 對答이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하세요.

○李海瓚委員 그래서 그 두가지 사실을 지적했는데 그 한가지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確認이 된다면 本委員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사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그러면 李海瓚委員이 요전에 發言한데를 보면 어느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는데 확실해졌다니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전번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하는 것은 ...

○吳景義委員 發言이 잘못되어서 規則發言하려고 합니다. 「마이크」넣어 봐!

(「訊問중이야! 訊問중」하는 이 있음)

(場内騒亂)

○委員長 文東煥 이것은 다시 아까처럼 幹事會議에다 돌려서 速記錄을 보고 결단해서 處理하기로 하고 訊問하세요.

○辛卿植委員 그러면 訊問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李海瓚委員 말이 그 李煥性 戒嚴司令官이 모른다고 그래서 그 戒嚴司令官도 모른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 모르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首警司 33師團이라고 一方的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럼 訊問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同僚委員들 發言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어서 참 뭇합니다마는 이것은 꼭 우리가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얘기라 이 訊問過程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아까 新民主共和黨의 金仁坤委員이 質問하는 과정에서 19살된 김영찬군이 19日 총격을 맞아 死亡했는데 그것을 아느냐 그렇게 證人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證人은 대답하기를 그때는 몰랐고 나중에 報告를 받았는데 그 報告를 받아보니까 裝甲車가 나무를 받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때 示威隊가 둘러쌌다 그래서 그 裝甲車안에 있던 將校가 탈출하기 위해서 하늘로 空砲를 쏘면서 뛰어나왔는데 그때 銃傷을 당했다고 報告를 받았다. 그렇게 答辯을 하니까 金委員 얘기가 그 시기에 19日에는 示威群衆도 전혀 없었다. 그것은 報告를 잘못받은 것이다 전혀 示威群衆도 없는데 銃을 쏘았다 銃을 쏘았다 얘기는 아니지만 示威群衆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銃擊을 맞아 사망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적은 記事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확인해가지고 과연 證人이 들었던 報告와 또 金委員이 얘기하는 사항과 같은가 다른가 그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 光州問題에 대해서 우리 特委 委員들은 모두 여러가지 연구를 합니다. 당시 東亞日報 光州駐在記者 김영택씨가 쓴 10日間の取材手帖이라는 이 책은 제가 알기에는 與野委員들 모두 한번씩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첫장서 끝장까지 구구절절이 光州市民들의 분노를 대변하고 軍人들의 過剩鎮壓을 비판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51「페이지」를 보면 바로 現場에서 取材를 했던 이 金記者 自身이 쓴 記事입니다. 19日 午後 4時30分 鷄林洞派出所 뒤쪽에서 裝甲車 한臺를 示威隊員들이 포위했다 群衆들이 사람의 벽을 쌓아 裝甲車의 전진을 막아버린 것이다. 群衆들은 裝甲車의 양쪽에 달린 監視鏡을 돌로 깨어버렸다 裝甲車의 눈을 빼앗은 것이다 그 안에는 將校등 9名이 타고 있었다 裝甲車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밖으로 나오려다가 모여드는 群衆들이 저놈들 죽여라고 외치자 그중 2名은 도망가고 7名은 다시 裝甲車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群衆들은 근처 「케인트」상회

에서 석유통을 구해다가 裝甲車 밑에 넣고 불을 질렀으나 發火되지 않았다 다시 짚더미를 가져다가 불을 질렀으나 타지 않았다 群衆들은 불이 붙은 짚더미를 들고 올라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집어 넣으려 했다. 그러자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서 銃이 發射되었다 空輸隊員들은 처음에 하늘을 향해 發射했으나 群衆들이 해산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群衆을 향해 發砲했다 이 發砲로 朝鮮大附屬高等學校 3學年 19歲 김영찬군이 손과 대퇴부에 세 發을 맞고 쓰러졌다 金君은 급히 朝大附屬病院으로 옮겨졌고 裝甲車는 群衆들이 웅성이는 틈을 타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다.

空輸部隊員이 投入된 후 최초로 發射發砲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記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記述한 김영택씨는 全南 咸平胎生으로서 그당시 東亞日報 光州駐在記者兼 全南取材班長으로 現場에 取材를 했고 지금은 女性東亞部 次長으로 있다고 여기 자세히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質問을 한 金仁坤委員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證人の 答辯은 적어도 지금 이러한 상황속에 示威隊가 없었다는 示威群衆이 없었다는 그러한 答辯보다는 그래도 그러한 상황을 후에나마 報告받았다는 이 책에 가까운 그러한 答辯을 하셨습니다.

저는 金委員 자신이 光州분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습시다라는 과연 이같은 한두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이렇게 책에 記錄되어가지고 여러 술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示威群衆이 없었다고 강조하는 그러한 發言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픡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또 다시 우리가 이 光州問題를 참 어떤 政黨的 次元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가 여기...

○委員長 文東煥 質問을 해주세요.

○辛卿植委員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證人께서는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裝甲車 속에 있던 軍人들이 밑에서 「신나」를 뿌려 불을 지르고 안타니까 짚을 갖다가 불을 지르고 그래도 불이 안타니까 뚜껑을 열고 짚

에다 불을 질러서 집어던지려고 했던 그 상황속에서 뛰어나왔던 空輸隊가 發砲를 한 것이 光州의 제일 첫 發砲라고 여기 記載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제일 첫번째 發砲였는가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책내용이 報告받은 사항과 어느 정도 실지로 같은가 또 아까 金委員이 얘기했던 전혀 示威群衆이 없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과연 示威群衆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을 분명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尹興禎 現地에서 取材해서 送稿한 記事는 굉장히 主觀的인 관찰이라는 판단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에 굉장히 가까운 記事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辛卿植委員 그 당시에는 이 報告를 못 받았고 그후에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김영택記者는 그것이 戒嚴軍이 發砲한 제일 첫번째 發砲다 이렇게 여기에 記述을 했는데 證人이 알고 있는 제일 첫 發砲는 며칠 몇시 어디에서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尹興禎 그 당시 저는 첫 發砲에 대한 報告를 받지는 못하고 제가 총소리를 들은 것은 20日 밤에 총소리를 듣고 확인을 시키니까 威脅射擊 空砲射擊이다 그런 報告를 받았습시다마는 지금 나중에 안 사실로서는 지금 물으신 대로 그것이 첫 發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辛卿植委員 그렇다면 그당시 示威群衆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 됩니다.

그러면 發砲經緯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누가 發砲를 뒤에서 命令했는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發砲가 위에서 내려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國防부와 陸軍本部의 文書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980年5月22日 10時45분에 送信된 電文 原本 하나를 복사해 왔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나 하면 發信 2軍司令官 受信 參謀總長 參照 作戰參謀副長 착상 전 第467號 自衛權行使 내용이 그것입니다.

本文은 裝備 武器 및 實彈 被奪防止를 위하여 80年5月22日 10時30분부로 全南 全地域의 警察 豫備軍 軍人은 自衛權行使를 하

것을 끝 이래가지고 2軍司令官이 參謀總長에게 보낸 電文입니다.

그렇다면 2軍司令官은 大邱에 있나요?

○證人 尹興禎 大邱에 있습니다.

○辛卿植委員 光州에서 이렇게 豫備軍 軍인 모든 사람들이 實彈 武器被奪防止를 위해서 自衛權行使를 해야겠다는 것을 陸軍本部에 올릴 때까지는 적어도 全南北 戒嚴分所에서 2軍司令部로 電文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22日 10時45分 發送했으니까 그 이전에 全南北 戒嚴分所에서 2軍司令部로 이와같은 내용의 電文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證人 尹興禎 電文을 보낸 기억을 제가 決裁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事態가 일어나고 바쁜 상황에서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辛卿植委員 어떻게 自衛權이 發動된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證人 尹興禎 自衛權은 21日 19時30分에 自衛權發動保有闡明이 있고 또 電通으로 下達이 되어서 제가 그것을 분명히...

○辛卿植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그 당시에 이같은 秘密文書의 電文을 볼 때 發砲命令이 위에서 내려간 것이라기 보다는 현지에서 현지 상황에 급하다보니까 스스로 自衛權이 發動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서 그 상황을 겪었던 證人으로서는 거기에서 發砲되었던 것이 위에서 發砲하라는 命令이 내려서 發砲한 것인지 아니면 이 電文과 같이 武器가 被奪되고 實彈이 被奪되고 裝備가 被奪되니까 自衛權의 對策으로서 거기에서 發砲가 이루어졌던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尹興禎 自衛權 發動에 대한 自衛權 保有闡明은 李煥性 戒嚴司令官이 지난번 聽聞會에서 證言을 했습니다마는 對民 警報用이다 하고 동시에 隷下部隊에게는 促求하는 것입니다. 警覺心을 주는...

○辛卿植委員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총을 쏘라고 위에서 시켰느냐 아니면 밑에서 급하니까 자기들이 우선 쓰고 나중에 그런 決裁를 올렸느냐 그런 차이인데 거기에

대해서 可否만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自衛權 闡明이라는 것은 그분이 闡明 안해도 法에 다 明示가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건데...

○證人 尹興禎 闡明에 의해서 戒嚴分所에서는 21日 20時30分으로 自衛權 發動促求指示가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辛卿植委員 한 가지만 더 물겠습니다.

이 戰敎司 作戰日誌 1704號에 10「페이지」입니다. 보면 5月18日 第31師團 상황에 5月19日 바로 직전 18日 상황 끝 부분에 31師團에서 武器庫 接近者 發砲 承認建議 31師指示 80-1 여기에 대해서 戰敎司에서는 服務規律에 의거 指揮官 裁量 實施토록 指示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31師團에서 師團長이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우리가 接近者에 대해서 發砲를 하겠다 承認을 해달라고 그런 建議이고 戰敎司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급하면 상황에 따라서 해라 하는 指示가 내려 갔다 그 내용입니다.

이 作戰指示에 대해서 더 자세한 說明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31師團 鄭雄 당시 師團長이 그 示威隊에 發砲하겠으니 承認을 해달라고 建議했던 사실이 있다고 지난번 國會 本會議에서 당시 國防部長官이 밝혔었는데 그 鄭雄將軍은 그것을 否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으로 봐서는 31師團에서 發砲를 해달라는 建議을 한 것이 틀림없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服務規律에 의거해서 指揮官 裁量으로 實施하라는 指示를 했던 우리 尹將軍께서 분명한 말씀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證人 尹興禎 그것은 軍人 服務規律에 의해서 措置를 하라 하는 것은 보호에 관한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주의를 促求한 것입니다.

보호에 관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對民을 部隊單位로 自衛權이라는 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指揮者의 命令에 의해서만 射擊이 되어야 된다.

만약 發砲가 이루어진다 할 때 正當防衛를 할때 말이지요. 그것이...

○委員長 文東煥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辛柳植委員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31師團長이 發砲建議를 한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점을 확인해주세요.

○證人 尹興禎 그것은 發砲 建議라기 보다는 응당히 해야 될 일을 물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인데 그것은 사실 그런 문의도 할 필요도 없었고 또 그런 指示도 할 필요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보조에 관한 것입니다.

○辛柳植委員 그 급한 상황에서 안 해도 좋고 그만 뒤도 좋은 일들을 이렇게 電通으로 급한 상황속에서 서로 주고 받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責任회피를 하기 위해서 責任전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남기기 위한 조치였나요?

○證人 尹興禎 책임회피라고 얘기하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의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시켜주는 것을 저는 책임회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分 停會를 하겠는데 그전에 우리 幹事들이 합의된 합의문을 제가 朗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寫眞에 관한 것을 幹事들이 합의해서 이런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月刊中央 1988年 3月號 410「페이지」에 掲載된 寫眞과 同一한 寫眞을 空輸特戰司令部 민심처 안대환 中領과 本部隊所屬 윤명한 上士가 가져 왔는 바 이 寫眞은 1969年6月10日에서 6月16日 사이에 위 上士가 참여한 黑山島 對間諜作戰에서 戰果獲得後 촬영한 寫眞으로 확인되었습니다.

李海瓚委員이 證人 訊問과정에서 이 寫眞을 提示한 것은 이 寫眞이 國民사이에 널리 읽히는 月刊中央 3月號에 掲載된 後 9個月間이나 아무런 異議 提起가 없었기 때문에 眞實로 알고 本意아니게 提示했던 바 光州民主化運動과 關係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該當軍의 士氣에 影響을 미친 데 대해서는 遺憾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합의됐다고 그렸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10分동안 停會를 하겠습니다. 다시 1時15분에 돌아오시도록 해주십시오.

(1時 2分 會議中止)

(1時18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平和民主黨의 趙贊衡委員 訊問하여 주십시오 時間은 25分입니다.

○趙贊衡委員 平和民主黨 趙贊衡委員입니다.

證人은 光州抗爭 당시 과격한 鎮壓보다는 온건한 鎮壓을 또 어떠한 경우이라도 流血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시면서 部隊를 指揮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며 本委員의 質問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5·18光州抗爭 당시 投入된 空輸部隊는 어떤 성격인지 證人이 평소 그에 대해 갖고 계셨던 見解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東煥委員長, 辛基夏幹事와 司會交代)

○證人 尹興禎 특히 鄭鎬溶證人께서 特戰司令官을 하시고 그 證言에서 여러가지 特戰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附加해서 말을 하면 特戰司는 非正規戰을 遂行하는 部隊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제가 教育司令官 在職 당시는 軍의 全體的인 戰力을 가장 效果的으로 발휘할 수 있는 方案을 여러가지로 研究를 해보았습니다.

結論은 特戰部隊는 平常時부터 그렇게 큰 규모의 部隊를 保有하는 것보다는 一般步兵師團의 空輸 落下訓練을 시켜서 그렇게 保有하는 것이 더 經濟的이며 戰力을 가질 수 있는 方案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예. 알았습니다.

證人은 그러한 空輸部隊가 示威를 鎮壓하는데 적절한 部隊라고 보고 계십니까?

○證人 尹興禎 狀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一般的으로 적절한 部隊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趙贊衡委員 좋습니다.

證人은 그러한 特殊部隊를 당시의 光州狀況으로 보아가지고 光州에 投入할 配置할 必要性이 있었다고 보셨습니까?

○證人 尹興禎 配置된 것하고 저의 意見하고는 아무 事實確認에 도움을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趙贊衡委員 그럴 必要性이 있었다고 그 당시 狀況으로 보아서 證人으로서 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證人 尹興禎 저 個人的으로 意見을 말하자면...

○趙贊衡委員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尹興禎 그런 必要는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趙贊衡委員 個人的으로 보셨으면 空輸部隊까지 光州에 投入할 必要性은 없었다 이렇게 보셨다는 것이지요?

당시 狀況으로 봐가지고 光州의 警察兵力이나 혹은 郷土師團 그리고 戰敎司 兵力만으로도 示威鎮壓에 충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았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은 벌써 既定事實化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空輸團의 投入이...

○趙贊衡委員 아니 警察兵力이나 郷土師團까지 고도 그 당시 示威는 충분히 鎮壓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判斷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證人 尹興禎 글썩 7空輸旅團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은 忠正計劃에 의해서 벌써 다 그렇게 既定되어 있는 事實이기 때문에 거기에 自體部隊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족하다 안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趙贊衡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證人은 다른 委員 質問에 5月19日 道單位 機關長 安保關係對策會議을 열었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몇時였습니까?

○證人 尹興禎 第1次가 19日 午前 10時頃입니다.

○趙贊衡委員 10時 場所는 戰敎司였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趙贊衡委員 證人은 아까 證言하시기를 證人은 軍服을 입고 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 자리에서 항의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抗議內容이 어떤 것이었기에 그렇게 부끄러웠습니까?

○證人 尹興禎 뭐 개 패듯이 軍人이 그렇게 뻔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말이지요. 뭐...

○趙贊衡委員 제가 대충 말씀드릴테니까 기억나신다면 얘기해 주세요.

첫째 軍의 鎮壓이 지나치다 어느 나라 軍隊가 이런 軍隊가 있는가... 맞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趙贊衡委員 國民의 軍隊가 그렇게 鎮壓할 수가 있는가... 맞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趙贊衡委員 6·25때도 그와 같은 殺傷은 없었다...

○證人 尹興禎 맞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趙贊衡委員 그래서 高等學生까지 示威가미가 있는데 어떻게 指導한다는 말이나... 이런 內容의 抗議등이 쏟아져 나왔다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證人 尹興禎 여하튼 李大淳 敎育監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學生問題를 위해서 제가 그 高等學校를 모두 登校를 안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찌나 그렇게 제가 그 얘기를...

○趙贊衡委員 그래서 그런 抗議를 받고 軍側에서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答辯하셨습니까?

○證人 尹興禎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隸下 같이 同席한 指揮官들에게 주의를 아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그리고 그 당시의 31師團에 大學生 軍事敎育을 위해서 大學生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師團長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서 우리 軍의 眞意가 그것이 아니니까 示威만 하지 말아라 示威만 안하면 그런 것이 없을테니까...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그 당시에 제가 數字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9日 20日 兩日間에 걸쳐서 副司令官 또는 그 將軍들이 몇이 있습니다. 저희 司令部는... 그 사람들은 보내서 逮捕한 人員들을 가서 전부 설교를 하라 이제부터 軍이 그런 苟酷行爲를 안할테니까 가서 示威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秩序를 지키고 治安을 유지하도록 여러분들이 나가서 協力해달라 나는 全員釋放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保安隊에서 이것은 主動者다 그래서 이것은 釋放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일부는 釋放을 못하고 많은

大學生 그 逮捕한 人員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후에 거기에 대한 成果는 별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趙贊衡委員 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證人 尹興禎 글세 그것은 제가 아직도 疑問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도 혼이 났기 때문에 풀어주니까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아주 귀가해서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豫測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趙贊衡委員 鄭鎬溶 特戰司令官의 光州來訪과 關係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鄭鎬溶 特戰司令官이 證人이 特戰司令官으로 在任하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5月18일부터 5月21일까지 몇번이나 光州에 내려왔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몇번 내려왔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鄭鎬溶委員이 20日 내려오고 22日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趙贊衡委員 證人은 그러면 鄭司令官이 光州에 와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證人 尹興禎 그 사돈도 찾아오고 또 딸도 찾아보고 그랬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趙贊衡委員 아까 鄭鎬溶委員이 證言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AC 狀況室 옆에 7空輸 旅團本部를 설치하는데 그 本部에 들렀었다는 證言이 있습니다.

그 CAC 狀況室 옆에 7空輸旅團本部를 설치한 것은 事實입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趙贊衡委員 證人은 오늘에서 아셨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趙贊衡委員 그러면 證人이 생각하실 때는 鄭鎬溶司令官이 왜 光州에 왔다고 생각 하셨습니까?

○證人 尹興禎 자기 構成部隊 隷下部隊가 일부가 光州에 와서 있기 때문에... 投入되어 있기 때문에 돌보러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趙贊衡委員 그 空輸部隊를 鄭司令官이 指揮

하기 위해서 왔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돌보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證人 尹興禎 指揮는 아니지요. 指揮를 할 수 없지요.

○趙贊衡委員 돌보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趙贊衡委員 다음 묻겠습니다. 特戰司 戰鬪詳報에 의하면 P-77 無電機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 無電機를 25臺를 光州에 가져온 것으로 記錄되어 있습니다. 그 P-77 無電機는 어떤 無電機인가요?

○證人 尹興禎 그것은 步兵하고 通할 수 있는 無電機입니다. 그것은 FM...

○趙贊衡委員 그러면 AM·FM 通信方式중 어떤 방식의 無電機입니까?

○證人 尹興禎 FM입니다.

○趙贊衡委員 FM입니까?

○證人 尹興禎 예.

○趙贊衡委員 戰教司에도 그런 無電機가 있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通信學校에는 그 教育用 장비가 꽤 있었습니까. 大田에 있는데...

○趙贊衡委員 通信學校에는 教育用으로...

○證人 尹興禎 그 教育用으로 지장이 있는 것은 제가 差出을 안 시켰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면 一般兵力은 그 無電機를 갖고 있지 않았겠네요?

○證人 尹興禎 31師團하고 35師團은 가지고 있지요.

○趙贊衡委員 31師團에서는 P-77 無電機를 갖고 있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P-77...

○趙贊衡委員 갖고 있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P-25를 지금 77이라고...

○趙贊衡委員 P-77 얘기입니다.

○證人 尹興禎 그러니까 25에 뭐 하나 더 붙으면 70 몇계열로 되는데 그것 제가 확실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그 番號가 77...

○趙贊衡委員 확실한 기억이 안나십니까?

○證人 尹興禎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그것을 空輸團이 가지고 왔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25臺를 가지고 왔습니다.

○趙贊衡委員 그것은 歩兵과 通話를 하기 위해서 가져 온 것으로...

○證人 尹興禎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特戰司 隷下部隊가 P-77 無電機를 가지고 使用하는 것이 보통 一般的인 것입니까?

○證人 尹興禎 거의 그것은 使用안할 것입니다.

○趙贊衡委員 特戰司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證人 尹興禎 예.

鄭委員께서 어떻습니까? 特戰司 勤務를 하 셴지요?

○鄭東鎬委員 예.

○證人 尹興禎 어떻습니까? FM通信網은...

○鄭東鎬委員 주로 使用안하지만 使用합니다.

○證人 尹興禎 保有 합니까?

○鄭東鎬委員 예.

○證人 尹興禎 77...

○鄭東鎬委員 예.

○證人 尹興禎 알았습니다.

○趙贊衡委員 좋습니다.

空輸部隊에 대한 31師團의 作戰統制權을 아 까 鄭鎬溶證人 證言에 5月20日 16時를 기해서 CAC로 轉換됐다 이런 證言이 있었읍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尹興禎 예.

○趙贊衡委員 그렇게 轉換한 이유는 무엇이었읍니까?

○證人 尹興禎 아까 그 鄭鎬溶證人의 證言에 附加해서 저는 그때 그런 考慮를 한 것 같습니다. 通信考慮를 주로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고정되어 있는 위치에 있을 때는 31師團長이 通信이 유선으로 잘 됐는데 道廳을 철수해서 外廓世帶로 이렇게 벗어나는 機動을 하는 경우에 그 通信은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司令部에서 직접 統制하는 것이 더 效果的으로 統制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考慮도 제가 아마 해서 그런 決定을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면 作戰統制權 轉換指示는 누가 했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렇죠. 그렇다면 證人이 그

轉換理由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기억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무슨 指揮의 幅이 넓어져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趙贊衡委員 鄭委員의... 그 당시 鄭 雄將軍의 陳述에 의하면 作戰權을 作戰指示統制權을 剝奪당한 것처럼 다시 말해서 그 이유는 強硬鎮壓에서 穩建鎮壓方法을 指示했기 때문에 이 統制權을 剝奪당한 것처럼 陳述하고 있는 데...

○證人 尹興禎 누가 말입니까?

○趙贊衡委員 鄭 雄師團長이... 그런 말은 틀린 말입니까?

○證人 尹興禎 지난번 國會 本會議에서 그런...

○趙贊衡委員 예. 對政府質問에서 그런...

○證人 尹興禎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剝奪당하거나 그런 한 사실은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다음 道廳 撤收命令이 5月21日에 있었죠?

○證人 尹興禎 예.

○趙贊衡委員 기억이 나시죠?

○證人 尹興禎 예.

○趙贊衡委員 몇時였습니까? 撤收命令하신 時가...

○證人 尹興禎 撤收命令은 時間을 明示하고 指示를 내지 않고 무슨 조속히라든가 무슨 그런 표현을 해서 軍隊에서 쓰는 지체없이 이런 用語를 쓰지 않았겠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명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면 證人에게 道廳撤收建議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證人 尹興禎 建議를...

○趙贊衡委員 證人의 獨自的 判斷에 의해서 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1師團長으로부터 建議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空輸部隊로부터 建議도 될 수가 있었고 31師團長이나 空輸部隊 두 部隊중의 한 部隊는 아닙니까?

○證人 尹興禎 명확히 建議를 받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建議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

나 12時전후해서 李煥性戒嚴司令官하고 電話를 하는 데에서 建議를 해서 承認을 받았읍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면 말이지요. 證人이 道廳 撤收를 決心하고 같은 시간에 空輸部隊에 대한 作戰統制權을 31師團에서 CAC로 轉換했는데 기억나시는가요?

○證人 尹興禎 그 시간이 같지는 않을 것읍니다.

○趙贊衡委員 거의 같습니다.

○證人 尹興禎 거의 같습니까?

○趙贊衡委員 좋습니다. 어쨌든...

○證人 尹興禎 電話通話를 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고리를 했냐하면 道廳에 있는 各種 文書 또 警察이 保有하는 火器 彈藥 通信資材 여러가지 物件이 많았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휴대할 수도 없고 또 車輛으로 運搬할 수도 없는 狀況이기때문에 「헬리콥터」로 그것을 전부 撤收를 시켜야 되는데 夜間에 「헬리콥터」가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은 다음에 1次 또 道知事나 市長을 통해서 우리 戒嚴軍이 나간다 나가니까 제발 治安維持를 힘써달라하는 이러한 廣告를 하고 그리고 撤收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고리를 한 기억이 납니다.

○趙贊衡委員 어쨌던 道廳撤收하기 전까지는 空輸部隊를 指揮하고 있는 部隊의 指揮官은 31師團長이 맞지요?

○證人 尹興禎 예.

○趙贊衡委員 그러면 5月20日 16時 空輸部隊의 道廳撤收는 그때까지 空輸部隊를 指揮하고 있던 31師團長으로부터 建議를 받아 가지고 決定하는 것이 軍의 正常的인 그런 指揮系統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證人이 생각했을 적에는... 그때까지는 31師團長이 指揮하고 있으니까...

○證人 尹興禎 그렇지요. 建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것은 좋지요. 그런데 上級 指揮官이 그런 狀況을 綜合해서 自己判斷으로도 그런 문제는 決定할 수가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왜그러냐 하면요. 사실은 31師團長은 撤收建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現地에 있던 輸送部隊員들이 31師團이

아닌 CAC로 바로 建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證人 생각은 어떠십니까?

○證人 尹興禎 그런데 空輸特戰旅團의 그 部隊의 特性으로 보아서 이 撤收라는 것은 한 가지의 退却의 개념인데 空輸特戰團이 全滅하면 했지 建議는... 아마 도망가겠다고 建議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趙贊衡委員 空輸部隊가 建議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입니까?

○證人 尹興禎 예.

○趙贊衡委員 證人은 지난 6月20日 國防部에서 당시 吳滋福國防長官 만나신 일 있으십니까? 6月20日쯤...

○證人 尹興禎 6月20日頃에...

○趙贊衡委員 지난 얼마 안되었읍니다.

○證人 尹興禎 國會 本會議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나와서 제가 記錄을 좀 보기 위해서 國防部에 갔읍니다.

○趙贊衡委員 그러셨습니까? 吳滋福長官하고 무슨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證人 尹興禎 무슨 資料가 있으면은 특히 보고 싶었던 것이 作戰命令關係인데 그리고 狀況日誌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것이 없고 그 光州에 事態가... 民主化 運動이 그것이 收拾되어서 얼마 시간이 經過後에 만들어진 그 戰敎司의 무슨 그 作戰日誌인가 그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봤읍니다.

○趙贊衡委員 혹시 그 31師團長의 發砲建議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아까 辛委員께서 質問하는 한가지를 제가 對答을 못하고 끝났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말씀도 좀 하겠읍니다.

○趙贊衡委員 우선 이것부터 말씀하시고...

○證人 尹興禎 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贊衡委員 예. 하십시오.

○證人 尹興禎 31師團長으로부터 發砲建議를 받은 것이 아니고 30師團으로부터 받았는데 몇번 받았는지 그것은 기억이 없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의심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일수將軍이 31師團의 副師團長을 하면서 60訓練團長을 했기 때문에 한일수將軍도 31師團의 狀況室에서 또 電話를 했고 해서 師團

에서 받았다 하는 의식은 제가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31師團長으로부터 建議을 받은 것이 아니라 30師團으로부터 또 그 아까 보초의 發砲問題와 연관해서... 發砲問題도 30師團으로부터 한 것이지 31師團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아까 質問에 對答을 드리고 또 지금 趙委員의 하나의 質問에도 對答을 했습니다.

○趙贊衡委員 證人は 그동안 말이지요 與人士들로부터 光州抗爭의 責任을 당시 31師團長인 鄭將軍에게 뒤집어 좀 씌워달라 이런 권유를 많이 받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혹시 없습니까?

○證人 尹興禎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戰敎司 戰鬪詳報를 보면은 80年5月17日 24時를 기해 戒嚴布告 第10號가 發令되어 非常戒嚴이 擴大 施行되고 國內騷擾事態 關聯人士들을 連行 調査하게 되자 金大中追從勢力 및 極烈分子들이 光州地域學生 그리고 住民을 煽動調整해서 布告令에도 불구하고 光州地域에만 유난히 惡化되고 있다 하는 것이 그 戰鬪詳報에 作戰地域의 一般的인 特徵事項으로 掲載되어 있습니다.

證人は 당시 戒嚴軍分所長으로서 과연 그 당시 現地에 계시면서 과연 金大中追從勢力이 그와 같이 學生 住民을 煽動했다고 보셨습니까?

○證人 尹興禎 口號가 말입니다 金大中釋放 이런 것이 상당히 그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 그럴 可能性에 대해서 여러가지 報告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렇게 말었습니다

○趙贊衡委員 그 당시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尹興禎 지금은 조금 견해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어떻게 달리 하고 계십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은 사실을 糾明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견해이기 때문에.....

○趙贊衡委員 다시 말해서 그렇지 않다 지금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趣旨의...

○證人 尹興禎 그것은 어떤 根據가 있는 것이 아니라...

○趙贊衡委員 글썩요. 證人の 의견으로서는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趣旨을 지금 말씀하시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證人 尹興禎 맞습니다

○趙贊衡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統一民主黨의 張石和委員님 訊問하여 주십시오

許容된 時間은 20分입니다

○張石和委員 統一民主黨의 張石和委員입니다.

證人! 늦게까지 比較的 精確한 答辯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精確한 答辯을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동안 委員들 質疑에 證人の 答辯이 좀 不分明한 점을 제가 몇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까 指揮體系가 二元化現象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疑心을 가졌노라 또 總長이 그와 같이 당연한 것을 強調한 것은 이상했다고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 具體的으로 들어난 指揮體系 二元化現狀은 없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그 당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文書로... 그런 것을 보고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張石和委員 또한 아까 證人께서는 指揮者의 命令에 의해서만 發砲가 가능하다고 證言하셨지요?

○證人 尹興禎 예.

○張石和委員 그러면 이 경우에 아까 自衛權 發動하기 전에 發砲된 5月21日 1時半 發砲도 그렇고 그 전 것도 그렇고 이와 같은 경우에 現場 指揮者의 命令에 의해서 그와 같은 發砲가 이루어 졌습니까 아니면 그 위 線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發砲命令이.....

○證人 尹興禎 그것은 어느 線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現場 指揮者가 大隊長이 지요?

○證人 尹興禎 大隊長……

○張石和委員 大隊長線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證人 尹興禎 원래 軍에서 最下 戰鬥單位 하면 中隊長級입니다.

물론 小隊長이 派遣… 1個小隊가 單獨으로 나가 活動할 때는 小隊長도 저는 自衛權에 대한 發砲命令을… 發射命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張石和委員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發射命令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證人 尹興禎 특히 중요하지요.

○張石和委員 예. 市民에 대한 發砲行爲는… 그와 같은 發砲命令을 위 上官과 相議없이 그 現場에서 指揮者가 中隊長이나 大隊長이나 바로 發砲命令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證人 尹興禎 中隊長 이상이면 指揮하는 거기의 指揮官이었다면 그것은 發砲를 할 수… 正當防衛를 위해서 그것은 調査를 해 보고 精確한 情況을 보아야 되지만 그것이 正當防衛였다면 그것은 自衛權 行使라고 볼 수가 있을 줄 압니다.

○張石和委員 證人!

5月21日 午後 1時半부터 3時사이에 이루어진 道廳앞 發砲 그 이후에 들은 바가 있지요? 狀況을…

○證人 尹興禎 상당히 後에 알았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때 상황을 들어보시니까 그것이 軍人들의 自衛權 發動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보았습니까? 그 당시 「버스」가 軍人들한테 그 당시에 달려가고 있었는데 軍人들을 좀 불러가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달려가 있었는데 거기 그 「버스」에다 무조건 發射를 했지요? 그때… 그런 狀況이지요?

○證人 尹興禎 단순히 「버스」가 지나가면서 비켜달라고 해서 만약에 쏘았다면 그것은 正當防衛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狀況은…

○張石和委員 볼 수 없지요?

○證人 尹興禎 그러나 車輛으로 危害를 가해올 정도로… 거기 실지로 제가 그때 報告한 기로는 警察官이 네 名이나 그 날 壓死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任務遂行을 하는

軍에 대해서 任務遂行을 못 할 정도의 危害를 부당하게 가해오는데 대해서는 正當防衛權을 行使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후에 報告받은 바에 의하면 그것이 正當防衛입니까? 過剩防衛입니까? 證人이 어떻게 判斷했습니까?

○證人 尹興禎 저는 그것을 判斷할 機會도 없이 떠나왔습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空輸旅團과 31師團과 通信連絡網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지요? 그렇지요?

○證人 尹興禎 그렇게 推定을 했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그 空輸旅團들은 어디와 通信連絡網이 제대로 이루어 졌습니까? 그 特戰司와는 제대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은 자기 部隊니까 잘 되었겠지요.

○張石和委員 特戰司 이외에 어느 部隊와 通信連絡網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은 자기 部隊끼리만 通信이 되지 그 隣接部隊 그 외 다른 部隊하고는 아마 通信이 잘 안될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니까 光州抗爭 당시에 空輸旅團은 特戰司와만 通信網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證人이 命令型任務만 받아서 불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證人이 받은 命令型任務의 내용은 具體的으로 무엇입니까?

○證人 尹興禎 단편 命令입니다. 단편命令…

○張石和委員 具體的으로 무슨 命令이 내려왔습니까?

○證人 尹興禎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記錄을 보고 그때 생각을 더듬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느 學校를 어떻게 占領하라 또는 무슨 鎮壓을…… 商店「서터」를 다 닫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상당히 細部的인 그런 단편 指示가 자주 내려왔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니까 一方的인 指示만 내려왔기 때문에 證人이 불만이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證人 尹興禎 제가 불만을 할 수 없지요. 그것을 위해서 全力 遂行을 했습니다마는 제

가 軍人이기 때문에... 遂行을 했다는 것은 제가 그대로 隸下部隊에다가 移牒 下達을 했읍니다마는 아까 李光魯委員께서 왜 初期段階에 全 可用兵力을 가지고 그렇게 못 했느냐 하는 꾸지람을 내가 받아서 辯明을 좀 했읍니다.

○張石和委員 예. 좋습니다.

證人이 아까 全斗煥씨와 만나서 崔大統領이 優柔不斷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장소가 在鄉軍人會아닙니까?

○證人 尹興禎 在鄉軍人會가 아닙니다.

○張石和委員 아닙니다?

○證人 尹興禎 예.

○張石和委員 5.17前은 확실하지요? 時期는?

○證人 尹興禎 전이지요.

○張石和委員 4月下旬입니다?

○證人 尹興禎 4월 5월 그 頃이 될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아! 5.17前이고 4월 5월사이다? 保安司令官室입니다?

○證人 尹興禎 그런 것같이 記憶됩니다.

○張石和委員 아! 保安司令官室이다……

○證人 尹興禎 예.

○張石和委員 그 당시 全斗煥씨가 實權者라고 鄭鎬溶씨가 午前에 證言하셨는데 그 당시에 全斗煥씨가 實權者였지요?

○證人 尹興禎 實權者였겠지요.

○張石和委員 예. 實權者였지요... 全斗煥씨가 5月21日 戰教司 訪問한 일이 있습니까? 5月21日……

○證人 尹興禎 제 記憶에는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證人이 光州에 戰教司司令官으로 제실 적에는 안 내려왔습니까? 全斗煥씨가...

○證人 尹興禎 10.26事件 前에 保安司令官이 되고 난 다음에 한번 왔다 갔습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過剩鎮壓을 인정하셨는데요 그러면은 過剩鎮壓責任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指揮體系上으로 指揮責任을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指揮責任이 그때 누구누구한테 있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過剩鎮壓에 대한 책임...?

○張石和委員 예.

○證人 尹興禎 저를 위시해서 31師團長 또

空輸大隊長이지요.

○張石和委員 證人 위는 어떻게 됩니까?

○證人 尹興禎 저의 위예요?

○張石和委員 예.

○證人 尹興禎 저의 위에는 뭐...

○張石和委員 2軍司令官 戒嚴司令官까지 올라가지요?

○證人 尹興禎 제가 제 上級者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렇지요?

○證人 尹興禎 예.

○張石和委員 그러면은 그위로 쪽 올라가면은 결국은 大統領까지 형식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당시 崔大統領이 힘이 없었지요?

○證人 尹興禎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張石和委員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5月21日 午後 1時半의 경우도 그렇고 이 事前發砲 自衛權發動하기 이전에 事前發砲가 있었는데 그 事前發砲責任을 이것이 正當防衛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책임을 또 누가 져야 될텐데 그 책임은 또 누가 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입니까? 마찬가지로 指揮體系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은 정확한 真相을 調査를 해서 그것이 正當防衛가 아니다 하면은 그것은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어떤 處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張石和委員 지금 證人이 말씀하신 過剩鎮壓에 대한 責任者와 똑같습니까? 5月21日 午後 1時半부터 3時까지 사이... 똑같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은 過剩鎮壓이 아닙니다.

○張石和委員 過剩鎮壓 아니라도 그것은 發砲責任인데요...

○證人 尹興禎 그것은 真相을 糾明을 해서 그것이 판명되면은 그 當事者들이 處罰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그리고 指揮責任은요?

○證人 尹興禎 指揮責任은 저는 그렇게 묻고 싶지가 않습니다.

○張石和委員 答辯하고 싶지 않습니까?

○證人 尹興禎 指揮責任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張石和委員 왜 그렇습니까? 그 現場指揮者가 自衛權을 發動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證人 尹興禎 正當防衛가 아니면 그것은 犯罪行爲입니다. 犯罪者를 處罰하지요

○張石和委員 犯罪者의 경우도 指揮責任이 있지요? 指揮責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尹興禎 저는 그것을 묻고 싶지않다 이것입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證人이 豫編됐지요? 豫編됐는데 그 당시 누가 豫編하라고 한 것입니까? 強制로 豫編되었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遞信部長官 되셨는데 이것은 全國 非常戒嚴下에서는 內閣이 實權이 없지요? 그래서 榮轉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左遷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누가 強制로 豫編을 시켰을 텐데 證人이 원하지도 않는 豫編을 아까 시켰다고 그랬지요? 누가 豫編시켰습니까?

○證人 尹興禎 ……

○張石和委員 證人도 陸士8期生이지요?

○證人 尹興禎 예.

○張石和委員 陸士8期生인데 그 위에 누가 있을텐데요. 豫編시킨 사람이…

○證人 尹興禎 글세요 入閣을 하라 하는 권유를 받고 제가 光州 이 事態를 수습하는 것이 나의 使命이요 내가 할 일이니깐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入閣을 거부하니깐 그 일보다는 入閣하는 것이 더 중요하따 그런 재차 勸誘를 받고 제가 옷을 벗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옷을 벗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승락을 했습니다.

○張石和委員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은 李煥性…

○張石和委員 아! 李煥性 戒嚴司令官이… 空輸旅團의 追加投入은 證人이 要請했습니까? 아니면은 鄭鎬溶씨가 陸軍本部和 상의해서 投入決定한 겁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지금 記錄을 보면은 11空輸는 내려 왔지만 要請없이 3空輸하고 20師團은 제가 要請한 것으로 이렇게 記錄이 왜 있습니다. 제가 要請을… 지금 기억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要請을 했다면은 그당시 作戰參謀副長도 現場에 와 있었고 2軍司令官도 자주 왔고 했기 때문에 勸誘를 받아서 아마 增員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제가 생각만

해 봅니다. 그것이 기억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제가 要請했다는데 대해서 記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히 나지를 않습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證人이 豫編되면서 遞信部長官으로 發命을 받는 사이에 戰敎司의 指揮權에 空白期는 없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指揮權의 空白期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鄭鎬溶씨 證言에 의하면은 武裝軍人들이 첫 出動命令때 목숨을 걸고 鎮壓을 맡아 달라 이런 얘기를 大隊長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證言을 했는데 누가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鎮壓을 맡아 달라고 命을 했습니까? 空輸部隊員들한테…

○證人 尹興禎 목숨을 걸고 鎮壓을 해달라고요?

○張石和委員 예. 아까 그렇게 證言했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證人 尹興禎 저는 못 들었습니다.

○張石和委員 아. 됐습니다.

모든 光州市民과 우리 國民들이 5.18抗爭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疑問 세가지가 있습니다. 「5月の 노래」 처음에 나오는 「왜 찢렸니 왜 쏘았니 어디로 실어갔니」의 세마디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먼저 「왜 찢렸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證人의 作戰指揮權 아래 있던 7空輸旅團 11旅團 3旅團이 단단한 鎮壓棒으로 市民들을 無差別 구타하고 帶劍으로 찢른 희생자들을 CAC로 실어 온 것을 證人이 본 적이 있지요?

證人 본 적 없습니까?

○證人 尹興禎 저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그 당시에 空輸部隊員들이 왜 이와 같이 過剩鎮壓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鎮壓棒으로 구타하고 軍靴발로 짓밟고 帶劍으로 찢르고…

○證人 尹興禎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것을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화려한 休暇」라는 空輸團을 除隊한 兵士가 下士官이 쓴 手記를 통해서 그것이 정확하다면은 그 지식에 의하면은 空輸部隊는 「테모」를 鎮壓하는 데 있어서는 警察보다도 裝備가 약합니다. 약한데 그 많은 「테모」를

막기 위해서 攻擊武器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投石하는데는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近接해서 그냥 어떻게 擊開形式的 鎗壓밖에 攻擊하는 것이 사실 없지 않느냐...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5月17日 全軍 主要指揮官 會議에서 空輸部隊 투입이 결정됐지요?

○證人 尹興禎 空輸部隊 투입이 그 會議에서 결정되지 않았읍니다.

○張石和委員 그 會議에서 國會解散 各級學校 休校措置도 결정 됐지요?

○證人 尹興禎 그런 措置가 결정되지 않았읍니다.

○張石和委員 예. 좋습니다.

○證人 尹興禎 休校措置... 休校措置는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張石和委員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鄭鎬溶씨가 그 會議에서 非常對策會議에 대한 언급을 했지요?

○證人 尹興禎 그런 사실은 없읍니다.

○張石和委員 아까 鄭鎬溶씨가 얘기를 했어요. 예. 좋습니다.

두번째 光州市民들이 제기하는 의문은 왜 쓰았니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月21日 1時半부터 3時까지 道廳 앞에서 空輸部隊가 集團發砲한 행위는 나중에 알고 보시니까 指揮系統을 따르지 않은 行爲였지요? 指揮系統을 따랐다면 證人이 알고 있었어야 될텐데...

○證人 尹興禎 예.

○張石和委員 그것은 틀림없다...

그러면 指揮系統을 따르지 않았다면 당시 空輸旅團이 31師團에 配屬은 되어 있었으나 제대로 證人이나 31師團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는 결론이지요?

○證人 尹興禎 제 지휘는 받을 필요가 없고 31師團長 指揮를 받아야지요.

○張石和委員 예.

그러면 指揮系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31師團長의 指揮를 받지 않았다는 결론이지요?

○證人 尹興禎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張石和委員 아 좋습니다. 指揮系統은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鄭鎬溶特戰司令官이 그날 직접 자기 그 隸下附帶 空輸部隊를 지휘한 것은 아닙니까?

○證人 尹興禎 그날이 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張石和委員 5月21日 입니다.

○證人 尹興禎 지휘할 可能性은 없읍니다.

○張石和委員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委員長代理 辛基夏 마지막 質問으로 해 주십시오.

○張石和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세번째 光州市民들이 제기하는 의문이 "어디로 실어갔니"입니다. 그러면 이 死亡者 負傷者들이 어디로 실려갔읍니까? 어떻게 처리가 됐읍니까?

○證人 尹興禎 그 戰敎司 연병장에도 꽤 많이 왔읍니다. 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9日 22日에는 그 連行者들을 많이 釋放을 했읍니다. 그리고 21日 상황에서는 거의 連行者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동자라고 분류된 사람들은 保安隊나 이런데 連行 했으리라 믿읍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死亡者 負傷者의 처리에 관해서 모두 적절하게 처리 됐다고 證人 자신할 수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저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읍니다. 강조를 했는데 결과를 제가 확인을 못하고 얼마나 치료가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對策會議 때도 負傷者를 최대한으로 치료하도록 軍病院에서도 전부 개방하고... 그런 지시를 했읍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수행이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光州를 떠났읍니다.

○張石和委員 예. 정리하겠읍니다.

그 당시 鄭鎬溶特戰司令官이 주로 光州에 내려와 있었읍니다. 그리고 鄭鎬溶特戰司令官은 당시 實權者인 全斗煥保安司令官과 친한 사이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鄭鎬溶特戰司令官이 자신의 隸下部隊를 직접 지휘하고 모든 作戰命令에 관해서는 全斗煥保安司令官과 상의를 해서 처리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는 일이지요.

○張石和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民主正義黨의 李敏燮委員 訊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訊問時間은 30分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敏燮委員 證人께서 정말 밤늦게까지 이렇게 어려운 證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구나 9年 가까이 되는 오랜 세월에 묻혀 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여러가지로 쪽 고통이 많으신 것같이 느껴져서 그만 訊問하기가 미안하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벌써 많은 委員들이 물으셨기 때문에 몇가지 좀 의문이 나는 것만 이렇게 質問하겠습니다.

당시 5月16日에도 道內에 各 그러니까 光州에 있던 大學生들이라든가 이런 示威가 상당히 現地에서는 좀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억이 되십니까? 17日 하루전입니다마는...

○證人 尹興禎 16日입니까?

○李敏燮委員 예. 16日입니다.

○證人 尹興禎 16日...

○李敏燮委員 道內 6個 大學生 2萬餘名이 오후에 道廳앞 광장에 모여서 集會를 갖고 여러가지 夜間示威도 개최하고... 아! 夜間示威한 날입니까?

그것이 16日입니까?

○證人 尹興禎 예.

○李敏燮委員 알겠습니다. 5月14日 그러니까 아까 證人께서 光州市內 KBS MBC CBS 이런데 戒嚴軍이 進駐를 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 14日쯤해서 放送局을 경비하는 主要施設 警戒目的으로 경비한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木浦도 CBS KBS가 있었는데 거기도 警戒를 했는데요... 戒嚴軍이 사전에 배치...그 당시에는 全國戒嚴擴大前이지만 戒嚴下니까 戒嚴軍이 重要施設警戒를 위해서 학생의 示威가 심하고 하니까 그런 施設警戒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잘 기억...

○證人 尹興禎 그것은 잘 기억이 안나기때문에 그것은 鄭雄委員님께 물어보시면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李敏燮委員 그것은 그 당시에 警戒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戒嚴軍의 事前配置나 하는 이런 오해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7日은 물론 全國 非常戒嚴擴大고 당시의 상황이 아직 光州에서는 그런 사태악화를 예견하기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兵力이 얼마나 필요할지가 소요판단이 잘 나지 않았던 것이고 또 그래서 인근에 있는 7旅團兵力 2個 大隊만이 와서 1個大隊씩 大學에 주둔을 한 것으로 아는데 사태가 18日부터 이렇게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19日은 더 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警察만의 防禦로는 어렵겠다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3旅團도 요청하고 20師團도 요청한 것 같다 이런 기억을 아까...

○證人 尹興禎 아 記錄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敏燮委員 예. 記錄에 있고 기억에는 회미합니까? 요청하신 것이...

○證人 尹興禎 예. 기억에는 제가 요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유를 받고...

○李敏燮委員 그때 당시에 거기에 作戰統制하고 있는 2軍司令官도 자주 오시고...

○證人 尹興禎 예. 作戰參謀副長도 또...

○李敏燮委員 陸本作戰參謀副長이지요?

○證人 尹興禎 예. 내려와서...

○李敏燮委員 그러니까 實質的으로 兵力配置를 하고 있는 그러한 責任者가 되겠지요.

○證人 尹興禎 예.

○李敏燮委員 알겠습니다.

당시에 過剩鎮壓과 관련하여 着劍問題가 많이 學論이 되었었는데 대개 戒嚴軍의 着劍은 어느 경우에하고 作戰에 임했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着劍을 어떤 線에서 命令에 의해서 着劍을 했느냐는 제가 그것을 알수가 없습니다.

○李敏燮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武力示威할 때만 着劍을 한 것인지 평소에도 항상 着劍을 하고 다녔던 것인지 兵士들이 말이지요.

○證人 尹興禎 평상시에 着劍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李敏燮委員 武力示威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着劍을 하겠지요? 그 事態 당시에 18日 이후에 兵士들이 항상 着劍을 하지 않고...

○證人 尹興禎 예. 着劍은 안합니다.

○李敏燮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18日부터

全南大學校앞에서 부터 충돌이 생겨가지고示威가 발생하고 했는데 이러한 데에 대해서 당시에 31師團長으로부터 이런 사태가 이렇게 상당히 저거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어떤 報告가 있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報告는 몇번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몇일날을 말씀하십니까?

○李敏燮委員 예를 들면 被害를 최소화하고 또 市民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잘하란다는지 이런 指示를 師團長한테 하신 적이 있는지?

○證人 尹興禎 그것은 對策會議를 통해서 제가 指示를 했습니다.

○李敏燮委員 그리고 당시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流言蜚語가 상당히 신속히 事態 첫날이라고 할 수 있는 18일부터 이렇게 급속히 퍼져나갔는데 특히 地域感情을 크게 자극하고 또 처녀라든가 또는 여학생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各階各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流言蜚語들이 신속하게 많이 나돌고 또 18일에는 당시 人名殺傷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당시에 벌써 人名殺傷을 前提로 한 流言蜚語가 많이 나돌았는데 그후에 물론 도중에 우리 證人께서는 떠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런 것이 정말로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組織的으로 신속히 이렇게 퍼져나간다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거나 調査같은 것을 當局에서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證人 尹興禎 記錄에 의하면 2軍에서 流言蜚語를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적절한 弘報活動 계몽 이런 것을 하라 하는 그런 指示를 받은 것으로 記錄이 되어 있습니다.

○李敏燮委員 그 당시에 流言蜚語가 어떠한 方法으로 퍼져나갔습니까? 예를 들면 口傳이라든가 무슨 油印物이 있다든가 무슨 다른 어떤 方法이 있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제가 알기에는 주로 口傳으로 갔는데 아까 李光魯委員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文書로 된 아주 많이 그런 것도 나돌았습니다.

○李敏燮委員 地下新聞같은 것... 예. 그 다음에 아까 證人께서 武器被奪에 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특히 軍部隊의 武器被奪은 거의 없었다 豫備軍武器庫라든가 또는 警察署 이런데가 많이 被奪이 되었고 軍 자체는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

셨는데 결국은 이런 것이 武器被奪의 責任 李煥性戒嚴司令官이 自衛權發動指示를 한 22日 12時 오히려 現地는 21日 밤8時半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軍司令部에서는 좀 더 늦고 戒嚴司令部에서는 22日 12時쯤에서 自衛權發動이 확인되고 이렇게 指示가 된 것으로 아는데 武器被奪責任者는 軍法會議에 회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事後處理問題에 그것이 들어가는데 事態가 다 수습되고 난 다음에 事後處理에 관한 것인데 제가 그것을 參與를 못해서 그런 것은 論議가 안되었습니다.

○李敏燮委員 하도 오해전이라 기억이 안 나 시겠습니까마는 그 당시 自衛權發動指示文에 武器被奪을 당하는 책임자는 軍法會議에 回附하겠다 하는 것이 명문으로 規定이 되어 있고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시아」自動車工場에서 장갑차를 포함해서 한 400餘臺 5月21日 이렇게 被奪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결국 그 책임자는 예비군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중요한 防衛産業體는 21日이면 벌써 事態가 발생한 지가 3·4日 되는데 軍部隊에서 1個小隊라도 이렇게 나가 있었어야 될 중요한 地域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좋습니다. 예비군이 책임자인 것 같았는데 이러한 예비군의 경우는 또 戒嚴下인데 예비군이나 警察의 武器庫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武器被奪의 책임의 범주에서 벗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軍만 軍法會議에 물론 回附가 되는 것인지 예비군은 어떻게 됩니까?

○證人 尹興禎 예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李敏燮委員 그러면 「아시아」自動車工場이 습격되고 모든 것이 被奪된 데 대한 그러한 책임은 미처 묻지 못하고 올라오셨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李敏燮委員 그 당시에 참 중대한 事態인데 물어야 되겠다는... 調査라든가 어떤 計劃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저는 미처 그런 것까지 計劃을 못하고 또 수습하는 그것에만 전력을 쏟았지 그런 수습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李敏燮委員 本 委員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여러가지 示威에 있어서 충돌할 수 있는 많은 상황을 상정해 보니까 마는 더우기 事態가 이렇게 급속히 악화될 수 있었던 것은 武器가 많이 被奪됨으로 이 武裝化 되는데서 全南地域全域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계기도 되고 해서 초기에 武器庫를 우리가 좀 철저히 지켰으면 적어도 이렇게 長期化되는 그런 입장은 안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尹興禎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光州市內에 있는 武器는 郷土師團이 적절한 시기에 또 2軍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거의 다 회수를 해 갔다든가 잘 지켜졌읍니다.

그런데 光州에 모든 警察力이 집중하다 보니까 그 光州 변두리에 中小都市의 警察 職場 거기의 예비군 武器庫가... 거의 전부 거기에서 被奪당한 무기들이 주로 거기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상황이 좀 어려워다 하는 것을 좀 인식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李敏燮委員 예. 알겠읍니다.

그리고 하나의 轉機가 됐다고 할까요 21日 下午에 道廳에서 철수한 상황에 대해서 물론 떠나시기 전날의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경황은 없었겠읍니다마는 또 어느 면에서는 여러가지 기억이 생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떠나시기 전날 下午 1時30분에 道廳에서의 大衝突이 있었고 또 發令의 소식을 받으신 것은 21日이었던가요 改關된 것이 21日...

○證人 尹興禎 예. 저녁에...

○李敏燮委員 예. 그래서 道廳을 그 시각쯤 철수를 했겠지요? 5時 6時頃에...?

그 당시에 먼저 나오신 周永福長官께서도 證言을 했읍니다마는 協議는 戒嚴司令官하고 협의를 하시고 철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證人 尹興禎 21日 밤12時에...

○李敏燮委員 그 전날밤 12時 이미 그러한 결심을 하셨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이 시간이 차라리 夜間에 撤收를 했다면 21日 下午에 그러한 충돌이 없이 어떻게 잘 철수가 되고 회생이

줄어졌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의견을 갖고 제신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證人 尹興禎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道廳은 상당히 중요한 書類가 또 警察의 武器 彈藥 이것이 상당한 양이 있었읍니다.

○李敏燮委員 알겠읍니다. 제가 잠깐 다른 일로 나간 사이에 말씀한 것으로 아는데.....

○證人 尹興禎 이것은 「헬리콥터」로 輸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음에 할 수없고 날이 밝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道知事나 市長이 이 사실을 우리가 道廳에서 戒嚴軍이 撤收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호소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아마 21日 아침에 11時頃에 「헬리콥터」로 방송을 했읍니다마는 별로 효과는 없었읍니다.

○李敏燮委員 20日 鄭鎬溶司令官을 처음 만나 셧지요? 그리고 그러면 21日 하루 지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신 건데 처음 만나신 날 다음에 作戰에 관한 어떤 指示랄까 鄭鎬溶司令官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읍니까?

○證人 尹興禎 鄭鎬溶特典司令官이 指示할 사항이 저한테는 없읍니다.

○李敏燮委員 어떤 隷下部隊에 지시를 직접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가정이 될 수 있겠느냐...?

○證人 尹興禎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李敏燮委員 軍의 指揮系統上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읍니까?

○證人 尹興禎 常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李敏燮委員 알겠읍니다.

道廳撤收는 조금더 아예 안하러면 늦추어서 끝까지 그것을 사수해서 그 光州市內가 空白狀態에 빠진 것을 좀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방도는 없었겠읍니까? 신속히 대책을 세워서 撤收를 안하는 도리 그당시 그냥 거기서 對話를 하고 市民代表들하고 對話하고 협상을 하고 해서 잘 對話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도에 대해서는 거의 가망이 없었읍니까?

○證人 尹興禎 對話 노력을 했었읍니다 全機關長들 모여달라고 하고 또 연행한 사람들을

다시 설득해서 돌려보내고 學生들 軍事훈련 받는 學生도 돌려보내고 했읍니다마는 거의 對話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읍니다.

○李敏燮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發砲關係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어보겠습니다.

아까 辛卿植委員께서 얘기할 때 18日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31師團에서 武器庫를 접근하는데 發砲承認建議를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우리 證人께서는 그것은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軍服務規律에 武器庫에 접근하면은 發砲하도록 自衛權이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 軍服務規律에 있는데 그것은 뭘 묻느냐 알아서 服務規律에 따라서 하라 이렇게 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建議까지 했었노라 하는 하나의 責任 전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다가 또 하나는 31師團이 아니고 30師團으로 이렇게 기억이 된다...

○證人 尹興禎 그것은 31師團입니다.

○李敏燮委員 그런데 그 전에 또 한일수將軍이 建議를 했다는 말씀도 했는데 그 한일수 장군께서 한 것은 그 武器庫接近發砲建議 말고 倉坪豫備軍訓練所에 지금 이렇게 시위대들이 와서 武器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기서는 服務規律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發砲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또 服務規律에 따라서 처리를 해라 하는 지시는 31師團의 鄭 雄將軍이 하셨을 때 그것을 했다 이랬거든요 지금 그것이 35師團입니까?

한일수將軍은 61訓練團長이지요. 그래서 아까 30師團이라고 분명히 두번이나 말씀을 하셔서 조금 그 당시 기억이 수색에 있는 師團인데 그것을 두번이나 하시고 거기서 건의를 했다 또 31師團에서 하셨다 도 한일수將軍이 건의를 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분명히 軍事機密 2級秘密로 우리 證人께서 책임을 맡으셨던 戰鬪教育司令部의 作戰日誌에는 18日字에 80-1 文書番號까지 적혀 가지고 31師團에서 發砲承認建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文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한일수將軍이 한 것 같다... 어떻게 됩니까?

倉坪豫備軍武器庫에 發砲 그것하고 31師團에서 發砲承認建議한 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은 별개의 것이지요.

○李敏燮委員 31師團은 80-1로 올라왔었지요? 그래서 아까는 그것을 30師團이라고 그래서 31師團 作戰指示를 부인하시는 것인가 했는데...

○證人 尹興禎 그것 정정해 주십시오.

○李敏燮委員 지금 야심해서 혹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1師團에서 發砲建議가 있었고 이것은 軍服務規律에 따라서 할 것인데 안해도 될 것을 했길래 거기 服務規律에 따라서 해라 하는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發砲... 그러니까 5月20日이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제 상당히 그 당시의 상황은 3時40分에는 7旅團 33大隊가 제림동일대의 示威를 맡고 있고 또 여러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인데 그 31師團狀況室에서 우리 將軍님한테 證人한테 전화를 鄭 雄師團長이 급히 하면서 發砲를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요청을 했다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21日 하오 2時입니다.

○證人 尹興禎 21日 하오 2時요?

○李敏燮委員 상당히 급한 목소리로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

○證人 尹興禎 제가 鄭將軍한테 직접 發砲建議를 받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李敏燮委員 그 당시 師團長室 狀況室에 근무하고 있던 장병들이 그것을 모두 확실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특히 그 당시 31師團 作戰補佐官인 少額 임중복씨에 의하면 이런 것이 지금 확인이 되는데 하도 오래되신 것인지 기억이 없으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證人 尹興禎 몇 시라고 그랬습니까?

○李敏燮委員 오후 2時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示威가 상당히 점차 심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證人께서는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 되겠지요 18日부터 사태가 악화되어서 19·20·21日 활동을 끝내고 이렇게 떠나시는 입장인데 이 당시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했던 우리 戰教司의 입장에서 사전에 어떤 상황을 예측하고 兵力增強을 計劃的으로 했단가 또 무슨 光州에

상당한 소요가 확대되겠다 이런 예감이나 또 어떤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당시 戒嚴司令官 얘기는 全北의 全州를 오히려 더 걱정을 했답니다.

○證人 尹興禎 全州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李敏燮委員 全北의 大學에서 누가 한사람이 희생이 되었다든가 이래서 혹시 그쪽이 좀 나빠지지 않을까...

○證人 尹興禎 그 당시에 복학생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는데 全北大學校가 오히려 全南大學校나 朝鮮大學보다는 복학생들의 문제가 더 심각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李敏燮委員 그래서 光州보다는 全州쪽을 신경을 좀 썼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證人께서도 그런...

○證人 尹興禎 그런 기억이 납니다.

○李敏燮委員 그러니까 光州는 사실 그렇게 예측이 정확히 되거나 이렇게 사전에 어떠한 그런 것을 예감할만한 그러한 것은 별로 못 느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별로 대비는 자체적으로 戒嚴分所長 입장에서 워 陸軍에서 部隊를 내려보내거나 그거는 그쪽에서 決定할 일이고 자체적으로 어떤 대비는 별로 안하고...

○證人 尹興禎 그당시 全南大學校하고 朝鮮大學에 軍事訓練을 받는 문제를 「보이콧트」해가지고 그것이 31師團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學生들하고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學生들이 軍事教練을 처음에는 「보이콧트」하다가 많이 응해가지고 점점 좋아져서 거의 全員 軍事教育도 받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대화도 많이 했고 해서 상당히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李敏燮委員 그런데 5月16日은 서울이나 이런데는 대체적으로 示威가 소강상태에 들어갔었고 光州의 경우는 2萬餘名 여러 大學에서 나와서 夜間 蠐螬示威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다른 地域과 비교를 못해 보셨겠지요. 그 地域에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다면...

○證人 尹興禎 16日입니까? 蠐螬示威가 15日이 아니고...

○李敏燮委員 16日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상황이 우리 그당시

책임을 맡고 계셨던 證人으로서는 불가항력이었다 하는 그런거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證人 尹興禎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李敏燮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平和民主黨의 李海瓚委員 訊問하여 주십시오. 訊問時間은 25分입니다.

○李海瓚委員 平和民主黨의 李海瓚委員입니다.

證人을 이렇게 모셔놓고 本 關係 特委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밤에도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으나만 本 特委의 중요성때문에 야심한 이 時間에도 證人의 證言을 듣게 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몇가지 사실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5月20日 오후 2時頃에 31師團長이 證人에게 發砲命令을 전화로 요청을 했다고 民正黨委員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戰敎司 戰鬪詳報에 보면 20日 오전에는 소강상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狀況日誌에 보시면 20日 午前에는 狀況이 거의 없고 1時半頃부터 2時 狀況에는 오륙십명씩 100名정도가 이렇게 산발적인 示威를 하는 걸로 狀況日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狀況日誌를 한번 보신 적은 있으셨나요?

○證人 尹興禎 그 狀況日誌가 戰敎司의 日誌입니까?

○李海瓚委員 예. 戰敎司 作戰狀況日誌입니다.

○證人 尹興禎 예. 봤습니다.

○李海瓚委員 이 日誌事項에 이 狀況이 별 차이가 없는거지요? 여기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요 1時 30分에 學生 市民 오륙십名이 집결 群衆 分散하면서 야유 中高生 200餘名 집결 戒嚴軍야유 이런 狀況이 대개 2時頃 狀況입니다.

○證人 尹興禎 오후 2時요?

○李海瓚委員 예. 바로 이런 狀況이기 때문에 31師團長이 發砲命令을 許可를 받도록 요청하지는 않는 상황이지 않았겠는가 하는게 本 委員의 판단인데요 어떤가요?

○證人 尹興禎 狀況이 별로 활발하지 않았다는 그런 과정이면 아까 李敏燮委員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李海瓚委員 바로 그런 20日 狀況에서요 20日 밤 11時頃에 세무서에서 「칼빈」총이 시민들 손에 넘어가지요?

○證人 尹興禎 예.

○李海瓚委員 그때는 총탄이 없는 총이 있지요?

○證人 尹興禎 그렇게 報告를 들었습니다.

○李海瓚委員 예. 그래서 칼빈총을 시민들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것을 갖다가요?

○證人 尹興禎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무슨 반납을 했다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李海瓚委員 예. 그것을 警察에 引繼하려고 했던 것을 學生들이 중간에 뺏았다가 나중에 31師團에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資料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20日狀況은 그렇게 큰 충돌 없이 넘어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21日 午後 1時頃에 全南道廳에서 처음으로 集團的인 發砲가 이루어지는데...

○證人 尹興禎 거기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20日 變일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20日 午後에 저녁때 택시기 「헤드라이트」를 켜고 굉장한 示威가 있었고...

○李海瓚委員 예. 示威는 있었는데 集團的인 發砲나 이런 상황은 없었지요? 20日은요.

○證人 尹興禎 지금 20日밤에 3空輸쪽에서 아까 사격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李海瓚委員 個人的인 차원이지 集團的인 發砲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證人 尹興禎 저는 20日 밤에 示威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道廳도 撤收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

○李海瓚委員 그러면 本委員이 이렇게 묻지요. 그러면 20日밤 이전 상황에 시민들이 武器를 탈취한 상황은 없었지요? 아까 稅務署의 총을 탈취했다가 돌려준 것 외에는 派出所라든가 다른 데에서 銃器를 탈취한 상황은 없었지요? 20日까지는요.

○證人 尹興禎 CBS에서 M16 한정 被奪 당했다고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李海瓚委員 시민들이 무장한 상태는 아니었지요?

○證人 尹興禎 예.

○李海瓚委員 그다음에 21日 1時까지도 시민들이 무장한 시민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지요?

○證人 尹興禎 정확한 것을 제가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금 對答을 못하겠습니다.

○李海瓚委員 報告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證人 尹興禎 報告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래서 21日 1時에 道廳에서 自衛權發動이라고 해도 좋고 표현이야 여하한 간에 發砲가 있었던 것은 證人이 지금 확인이 되었는데 한가지 本委員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밝히고자 하는것은 이것은 文書檢證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2軍狀況日誌에 보면 5月21日 1時30분에 道廳앞에서 軍人 한 사람이 中士한명이 射殺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軍狀況日誌에 보면요. 그 時間에 APC에 의해서 壓殺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軍狀況日誌는 戰敎司의 戰鬪詳報가... 戰敎司에서 報告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런데 戰敎司의 戰鬪詳報에는 壓殺로 되어서 나오는데 2軍狀況日誌에는 이렇게 射殺로 되어서 나오는 理由는 무엇이지요? 이렇게 戰敎司에서 射殺되었다고 報告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제가 그것 알 수가 없습니다.

○李海瓚委員 APC에 의해서 壓殺된 것은 아시지요? 그 裝甲車에 의해서 시민들이 장갑차를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깔려서 士兵 하나가 죽었다는 사실은 報告를 받으셨나요?

○證人 尹興禎 報告를 못받고 事後에 알았습니다.

○李海瓚委員 壓殺이었나요 射殺이었나요 나중에 들으시기를...

○證人 尹興禎 제가 그 報告는 光州를 떠날 때까지 끝내 그 당시까지는 認知를 못했습니다.

○李海瓚委員 당시에 戰敎司 戰鬪詳報에 보면 壓殺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壓殺된 상황이 2軍狀況日誌에 射殺로 記錄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는 것이지요?

○證人 尹興禎 같은 事件을 그렇게 다르게

記錄이 될 수는 없지요.

○李海瓚委員 바로 이점입니다. 바로 이점이 중요한데 바로 21日 1時頃에 發砲를 한 이유가 市民들이 發砲를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發砲를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政府의 發表였습니다. 그런데 이 時間까지 市民들이 軍人들에 대해서 發砲한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았읍니다. 바로 2軍狀況日誌외에는요 됐읍니다.

그다음에 아세아 자동차에서 APC를 市民들이 끌고 나갔는데 그때 銃器를 가져간 사실은 없었지요?

○證人 尹興禎 아세아에서 銃器被奪당했다는 報告는 받지 못했읍니다.

○李海瓚委員 그다음에 銃器被奪報告를 처음으로 받으신 것은 어디지요? 어디에서 銃器被奪의 報告를 받으셨읍니까?

○證人 尹興禎 CBS에서……

○李海瓚委員 CBS다음에는요.

○證人 尹興禎 그것은 稅務署에서…

○李海瓚委員 그다음에는요.

○證人 尹興禎 그후로는 報告를 못받았읍니다.

○李海瓚委員 그다음에는 21日 和順에서 武器가 被奪되지 않았읍니까?

○證人 尹興禎 記錄에 보니까 그것을 알았읍니다.

○李海瓚委員 和順에서 記錄上에 戰敎司狀況日誌에 보면 和順에서 武器가 被奪이 되었는데 銃器 460정하고 實彈 1萬발입니다. 和順에 있는 派出所4個를 기습해서 그렇게 했다 되어 있는데 和順에서 光州까지 보통 車輛으로 올라면 몇時間이나 걸리지요?

○證人 尹興禎 길이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한時間 이상 걸릴 것입니다.

○李海瓚委員 예. 그러면 여기 戰敎司 狀況日誌에 보면 被奪된 시간이 1時35分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時間남짓 걸리면 적어도 3時は 넘어야 武器가 도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光州에…

○證人 尹興禎 和順武器가 올라면 그렇게 되지요.

○李海瓚委員 그렇게 되는것이지요 이런 것으로 보아서 첫째는 稅務署에서 被奪한 武器에는 彈藥이 없었고 CBS에서 한 것에는 MI 한挺이었는데 不分明한 것이고 亞細亞自動車

에서는 銃器被奪은 없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 和順派出所에서 21日 1時35分에 被奪이 되는 것으로 報告가 오는데 그것이 光州에 도착하려면 적어도 3時나 되어야 市民들손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것은 21日 3時이전에는 市民들이 發砲할 수 있는 可能性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結論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日 1時30分頃 1時에서 1時30分頃에 걸친 戒嚴軍의 發砲는 市民들이 發砲한 것에 대한 正當防衛였다는 것이 지금까지 주장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否定되는 것 아닙니까?

○證人 尹興禎 그 正當防衛與否는 제가 아기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真相을 정확히 調査하여야만 確認이 날 것 같습니다.

○李海瓚委員 예. 됐읍니다. 그 다음에 本委員이 하나 더 證人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初期에 過剩鎮壓했다라는 것은 지금 認定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19日 열린 關係機關對策會議에서도 抗議를 많이 받으셨읍니다. 그런데 18日 空輸團軍인들이 실제로 市街에 나와서 그 學生들의 「대모」를 鎮壓한 것은 몇時頃부터였었읍니까? 全南大學校말고요 그 다음에 道廳앞에 나와서 한 것은…

○證人 尹興禎 정확히 午後입니다.

○李海瓚委員 몇時쯤이지요?

○證人 尹興禎 예. 다섯時頃…

○李海瓚委員 4時頃쯤이지요 이 資料上으로 4時頃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중요한 것은 오늘 鄭鎬溶證人이 얘기했던 바와 같이 18日 점심직후에 陸軍本部作戰參謀長 金在命씨와 상의를 해서 11空輸旅團을 내려보내기로 合議를 했읍니다. 그래가지고 11空輸旅團을 光州現地에 도착한 것이 4時40分頃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로 作戰도 안 해보고 11空輸가 다시 增派된 것이지요?

○證人 尹興禎 글썄요.

○李海瓚委員 예. 바로 그러니까 11空輸의 增派는 7空輸의 兵力으로 市民들의 저항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增派된 것이 아니고 7空輸에 이어서 그냥 增派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現地의 상황이 31師團에는 잘 報告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요 그 이유를

本委員이 잘 몰랐었는데 오늘 證人께서 하신 證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하니 空輸團은 AM無電機를 사용하고 步兵은 FM無電機를 사용 하기 때문에 FM無電機를 가지고서는 空輸團이 이동하면서 벌이는 作戰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바로 그점이 空輸團에서 특별히 31師團長한테 報告를 안하면 그 狀況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바로 그점이 31師團長이 空輸團이 過激鎮壓 하는 것을 올바르게 具體的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고 證人께서 그날 밤에 市民들로 부터 電話를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正式通路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市民들의 抗議를 통해서 過激鎮壓 양상을 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에 듭니다. 本委員의 판단이 맞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李海瓚委員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AM無電機라고 하는 것은 全國을 다 「카바」 할 수가 있지요?

○證人 尹興禎 그렇지요.

○李海瓚委員 FM은 局地的인 데 밖에는 「카바」를 못하지요?

바로 空輸部隊가 가지고 있는 이 AM無電機라고 하는 것은 特戰司令部가 現地에 移動하지 않고도 光州에서 벌어지는 狀況을 이 無電機를 통해서 알 수 있는 裝備지요?

○證人 尹興禎 그것이 그럴겁니다.

○李海瓚委員 예. 바로 이점입니다. 그러니까 特戰司는 나중에 戰鬪詳報에 보면 戒嚴決況日誌에 보면 2軍을 통하지 않고 戒嚴司令部에 별도로 光州狀況을 報告를 하고 있습니다. 特戰司에서...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特戰司에서 별도로 報告를 하려면 空輸旅團이 特戰司令部에 報告를 해서 報告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報告가 바로 이런 AM無電機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證人 尹興禎 通信은 통할 수가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通信은 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戰敎司를 통하지 않고도 特戰司 空輸旅團은 特戰司令部에 通信을 통할 수

있는 裝備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證人 尹興禎 예. 그것은 가지고 있지요.

○李海瓚委員 좋습니다. 바로 이처럼 光州 現地에 있는 特戰司의 活動이 形式上으로는 特戰司에 配屬이 되어 있고 作戰統制를 받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內容上으로는 두個의 「체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推論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證人께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21日 蘇俊烈將軍이 現地에 도착한 것은 몇 時쯤으로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證人 尹興禎 午後 서너너덧時나...

○李海瓚委員 午後 5時경으로 本人은 證言을 하고 있는데요...

○證人 尹興禎 5時... 예.

○李海瓚委員 證人께서 李煥性 戒嚴司令官 당시 李煥性 戒嚴司令官이 證人께 入閣을 얘기할 정도의 權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入閣이라고 하는 것은 國務總理가 大統領한테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개 戒嚴司令官이 長官任命에 관한 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別途로 얘기를 하고 李煥性戒嚴司令官이 證人께 入閣하도록 권유를 한 시각은 몇 時쯤 됩니까?

○證人 尹興禎 저녁때인데요.

○李海瓚委員 그러니까 蘇俊烈將軍이 도착하고 나서입니까?

○證人 尹興禎 예. 도착하고 나서입니다.

○李海瓚委員 도착하고 나서 얼마 차이 안나서입니까?

○證人 尹興禎 아니요. 꽤 오래되었습니다.

○李海瓚委員 꽤 오래 되었습니까? 그러면 원래 蘇俊烈將軍은 戰敎司 司令官으로 온 것이 아니고 證人을 보좌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요 원래 目的은요?

○證人 尹興禎 그 당시에 蘇俊烈將軍이 行政學校 校長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바로 隸下校長입니다. 저희 司令部의... 그런데 어떻게 왔느냐고 하니까 워 도와드릴 것 있으면 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도와주시오. 저는 또 그렇게 얘

기했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證人께서 入閣하기로 마음의 決定을 내리고 蘇俊烈將軍한테 業務를 引受引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날 저녁서부터 다음날 아침 10時까지 같이 있었지요.

○李海瓚委員 正式으로 業務引繼節次를 밟았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런 것 뭐 밝을...

○李海瓚委員 그런 경황이 아니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그런 경황이 아니었습니다.

○李海瓚委員 바로 이 蘇俊烈將軍이 現地에 도착했을 적에는 이미 發砲命令에 관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런 證言을 民和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21日 道廳에서 發砲가 있고 나서 自衛權으로 해서 衛戍令에 근거해서 自衛權으로 發砲를 했어도 그것은 衛戍司令官한테 報告를 해야지요? 하도록 되어 있죠? 衛戍令에 의하면... 法律的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衛戍令 15條에 發砲를 했을 경우 衛戍司令官한테 報告를 하고...

○證人 尹興禎 지체없이 報告를 해야 되겠지요.

○李海瓚委員 예. 衛戍司令官은 지체없이 參謀總長한테 報告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報告를 받으신 事實은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없습니다.

○李海瓚委員 1時에 發砲하고 報告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李海瓚委員 따라서 證人도 參謀總長한테 그런 發砲를 報告를 안하셨습니까?

○證人 尹興禎 안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못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李海瓚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蘇俊烈將軍이 現地에 도착했을 적에 發砲에 관련된 論議가 분분했던 것은 왜 그런 論議가 있었지요?

○證人 尹興禎 蘇俊烈將軍이 具體的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李海瓚委員 그날 21日 저녁에 그 戰敎司司令部에서 그런 發砲에 관한 論議에 證人도 參席을 하셨습니까? 21日 저녁 發砲에 관련

된 얘기를 戰敎司 事務室에서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證人 尹興禎 저는 제 기억으로는 누가 副司令官이나 作戰參謀가 이렇게 指揮權이 發動되었고 防禦目的으로 防衛權을 發動하란다 하는 무슨 電通을 가지고 와서 제가 서명을 하면서 隸下部隊에다가 그것을 下達하라 이렇게 指示를 했는데 그후에 副司令官 김기석將軍이 自衛權을 發動할 때도 먼저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威脅射擊을 하고 그 다음에도 그래도 접근해오면 다리미를 쏘아라 하는 그러한 註를 달아서 下達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는 장소에는 계시지 않았지만 그런 指示를 下達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報告를 들으신건가요?

○證人 尹興禎 제가 그 電文을 받고 그대로 隸下部隊에 下達하라고 제가 指示를 했습니다.

○李海瓚委員 예. 下達하라고요?

○證人 尹興禎 예.

○李海瓚委員 당시 崔雄旅團長의 證言에 의하면 21日 午後에 3旅團長 7旅團長 11旅團長 鄭鎬溶將軍 이 사람들이 함께 戰敎司에 있으면서 指揮를 하고 그날 6時에 自衛를 위한 發砲許容命令이 내려갔는데 불가피하게 發砲를 하더라도 下體를 쏘라는 指針을 붙여서 내려보냈다 이렇게 證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證人 尹興禎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李海瓚委員 기억을 못하시겠어요?

○證人 尹興禎 예.

○李海瓚委員 이런 會議에 本人이 參席을 안하셔서 기억을 못하시는 건가요 이런 會議 自體가 없었던 것 같은가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하고는 비슷합니다. 지금...

○證人 尹興禎 제가 그런 문제가지고 21日 무슨 會議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李海瓚委員 崔雄大使는 지금 現職 大使인데 이분은 당시 空輸旅團長을 하시던 분입니다. 바로 자기까지 포함한 會議의 내용을 이렇게 證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證人 尹興禎 그 會議를 제가 기억을 못하

것입니다.

○李海瓚委員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바로 蘇俊烈將軍은 18일부터 21일까지의 상황을 거의 잘 모르셨을 것이고 또 尹興禎證人께서는 22日 午後부터 27일까지 상황은 잘 모르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證言하신 것처럼 鄭雄少將은 또 21일부터는 거의 作戰指揮權을 행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세분의 主要指揮官이 18일부터 27일까지에 이르는 全體狀況을 어느 분도 상황을 잘 알고 있거나 혹은 일관되게 作戰을 執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各 空輸旅團은 證人께서도 모르시는 CAC戰敎司狀況室에 旅團 指揮本部를 차려놓고 당시 光州에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鄭鎬溶將軍은 20日 그 다음에 21일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22日 23·24·25·26·27日까지 어느 한번은 계속 光州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바로 尹將軍께서 서울로 온 이후에 實質인 光州에서의 作戰執行의 內容上의 執行은 鄭鎬溶將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남겨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證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統一民主黨의 李仁濟委員님 訊問하여 주십시오. 訊問許容된 時間은 10分입니다.

○李仁濟委員 民主黨의 李仁濟委員입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대목에서 아주 진실한 答辯을 해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本委員이 아주 제한된 時間內에 묻기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간결하게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證人이 22日 敎育司令官을 교체해가지고 떠날 때까지 光州抗爭期間동안에 全斗煥保安司令官이 光州에 내려온 일이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기억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光州에 保安部隊가 505保安部隊인가요?

○證人 尹興禎 505... 예.

○李仁濟委員 그 部隊가 戒嚴 당시에 證人의 指揮를 받지 않았지요? 獨立된 部隊였지요?

○證人 尹興禎 獨立部隊지요.

○李仁濟委員 예. 그 部隊가 光州抗爭으로 인해서 機能이 마비되거나 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機能이 마비 안되었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505保安部隊는 光州一團의 戒嚴狀況을 나름대로 파악해 가지고 자기 上級部隊인 保安司令部로 報告를 했겠지요.

○證人 尹興禎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仁濟委員 문제는 저 위에서 證人한테 내려오는 作戰命令이 포괄적인 裁量權이 있는 그런 訓令型의 명령이 아니라 아주 단편적인 命令이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光州市內의 상태를 소상하게 上部에서 알았을 때에만 그런 命令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요.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光州 505保安部隊가 陸軍本部로 情報報告 할리없고 그렇다면 保安部隊이외에 光州의 戒嚴狀況을 소상하게 上部에 報告할 수 있는 情報機關은 따로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推論이 가능합니다.

光州 505保安部隊가 光州의 戒嚴狀況을 날 날이 保安司令部에 報告하고 保安司令部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證人에게 전혀 裁量權이 없는 아주 指示的인 단편적인 作戰命令이 기안되어 가지고 그것이 形式的으로 戒嚴司令部 2軍司令部를 통해서 證人에게 下達되었다 어떻게습니까? 本委員의 推論에 무리는 없지요?

○證人 尹興禎 그렇게도 추리가 가능하겠습니까.

○李仁濟委員 이제 本格的인 質問을 하겠습니다.

戒嚴이 확대되고 5月17日 밤 12時부터 18日 새벽 2時까지 7空輸의 33大隊 35大隊가 全南大學校와 朝鮮大學校에 들어와서 證人이 31師團에 再配屬했다고 그랬지요?

○證人 尹興禎 예.

○李仁濟委員 그때 旅團全體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33大隊 CP라든지 指揮所 또 35大隊 指揮所는 駐屯地인 全南大와 朝鮮大에 설치되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그 이후에 戒嚴軍이 3空輸 11空輸가 다시 増派가 됐는데 7空輸의 다른 2個大隊 大田과 全州에 가 있던 것은 合流 안 했습니까?

○證人 尹興禎 合流 안 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19일은 11空輸旅團本部大隊 예고 3個大隊인데 그 다음에 20일은 7空輸 本部大隊 예고 4個大隊가 다시 増派가 되었는데 이때는 旅團全體가 왔지요?

旅團長까지 다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作戰指揮權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證人 尹興禎 그래서 7旅團 大隊는 配屬이고 3旅團하고 11旅團은 作戰統制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3旅團하고 7旅團의 旅團 CP는 어디에 설치가 됐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은 자기가 選定해 가지고 31師團長한테 報告했어야 될텐데 그 위치가 어디였는지 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31旅團長한테 報告가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만일 報告가 되었다면 31師團長은 證人한테 報告하였을 것 아닙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은 어떤 1日作戰 報告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報告가 되는데 통상 그것은 제가 보지 않고 그냥...

○李仁濟委員 戒嚴分所長이 證人이셨고 31師團長은 郷土師團이고 또 空輸旅團은 階級은 旅團長이 准將이니까 낮겠지만은 31師團이 그렇게 만만하게 통제할 수 있는 部隊도 아니고 중요한 部隊인데 證人이 責任者인데 어떻게 CP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 不可思議한 일 아닙니까?

○證人 尹興禎 불가사의는 아니고요.

師團長이 물론 報告를 했겠지만 제가 여러가지로 상황이 바빠가지고...

○李仁濟委員 예. 좋습니다.

바빠서 CP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作戰이 시작됐는데 集團發砲에 관해서만 제가 묻겠습니다.

5月20日 밤 늦게 아주 중대한 事態가 있었다는 것은 證人도 알고 있고 本委員이 그 作戰에 직접 參加했던 3空輸旅團 兵士한테 들은 이야기고 또 다른 책자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이 錦南路에서부터 群衆들한테 밀린 3旅團 3個大隊가 光州新驛으로 後

退하면서 發砲가 시작이 되었고 光州新驛에서도 車輛으로 돌진해 온 어느 運轉士들에게 중점적으로 射擊 命令이 일어나 가지고 아까 民正黨委員도 제시한 이 책에는 7名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고 5月20日 밤 늦게 「위싱턴 포스트」紙에는 11名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고 本委員이 면담한 당시 參戰兵士는 한 10餘名정도 죽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日 밤늦게 光州新驛에서의 일입니다. 證人도 대충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報告는 못 받으셨다고 그랬고...

○證人 尹興禎 報告는 못 받았고 나중에...

○李仁濟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5月21日 道廳앞에서 7空輸 3空輸 11空輸 그때는 大隊가 저에게 정확한 資料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때문에 몇 個大隊가 거기에서 저지선을 치면서 1時부터 아주 예민한 對峙 상태를 보이고 있었지요?

○證人 尹興禎 道廳앞에서...

○李仁濟委員 예. 道廳앞에서 그래서 이때 1時부터 2時사이에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 集團發砲가 일어나서 한 50名이 앞으로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까마는 수십명이 死傷한 것을 당시 報告는 못 받았지만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지요? 證人!

○證人 尹興禎 예.

○李仁濟委員 그러면 20日에 光州新驛과 21日에 道廳앞에는 大隊兵士들이 作戰을 한 곳입니다.

그러면 현장에는 大隊長이 제일 指揮官이지요. 그 大隊長은 旅團CP하고 수시로 상황을 報告했겠지요 그렇지요?

○證人 尹興禎 그렇지요.

○李仁濟委員 만일 發砲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필요성이 있다고 大隊長이 판단을 했다 라도 분명히 旅團 CP의 旅團長하고 상의를 했겠지요. 상황을 報告 하면서...

○證人 尹興禎 그렇겠지요.

○李仁濟委員 만일 旅團長이 報告를 받아서 發砲를 허용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판단을 할 때 당시에 31師團長도 있는데 31師團長은 21일부터 배제됐다는 그런 이야기

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지 證人이 光州 현지에 있는 上級責任者 아닙니까?

證人하고 상황을 報告하고 發砲여부의 판단을 맡길 그런 시간적 여유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요.

만일 證人이 旅團長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上官한테 報告하고 허용여부를 말씀드렸겠지요?

○證人 尹興禎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李仁濟委員 示威群衆이 그 당시에 武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李海瓚委員의 質問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금방 戒嚴軍들이 다 밝혀 죽습니까?

示威群衆들 한데 示威群衆들이 戒嚴軍 죽이려고는 안 했잖아요. 民主主義하자고 그랬지 몰러가라고 하고...

그러면 證人이 旅團長이었다면 또 좀 여유가 있었다면 上官 指揮官하고 논의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證人이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證人 혼자 결정했겠습니까 아니면 證人의 上級 指揮官인 2軍司令官이나 또 위의 戒嚴司令官한테 무전이나 전화로라도 긴급히 報告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요청을 했겠습니까?

○證人 尹興禎 제가 만일 그런 상황을 접했다면 저는 요청보다도...

○李仁濟委員 報告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말씀을 드렸겠지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수십萬이 운집한 示威群衆을 향해서 集團의 으로 發砲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 있는 大隊長이 결정할 수가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證人은 報告를 못 받으셨지요?

○證人 尹興禎 못 받았습니다.

○李仁濟委員 사후에도 報告를 못 받으셨지요? 간단히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만일 워낙 위급해 가지고 大隊長이 거기서 發砲를 해서 死傷者를 냈다하더라도 證人이 정말로 報告系統에 있는 上級者로 생각을 했다면 事後報告는 반드시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있는 大隊長은 旅團CP에는 틀림없이 報告했을 것이고 그러면 旅團長線에서 끊어버렸습니다.

旅團長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發砲前에 어디엔가로 發砲許容與否를 報告했을 것이고 또 워낙 급해서 못 했다 하더라도 사후에는 報告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당시에 實質的으로 光州地域에 투입된 戒嚴軍 가운데에 이 空輸部隊를 實質的으로 指揮한 계통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 강력한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證人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관해서... 처음부터 作戰命令도 다른 系統으로 올라가서 나온 것이 거의 확실하고 당연히 事前 發砲與否를 要請 받았어야 될 사람 또 死後에라도 報告를 받았어야 될 사람한테 아무 報告도 없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空輸部隊員들이 空輸部隊 大小 指揮官들이 그런 천가를 몰랐을 사람도 아니었을테고 어디엔가는 事前에나 事後에나 報告를 했을 것이다. 證人! 강력한 의심이 일지 않습니까? 指揮官으로서...

○證人 尹興禎 사실은 眞實을 解明하는데 이제 그러한 한개의 推理도 가능하겠습니까마는 그 推理가지고 眞實이 밝혀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李仁濟委員 예. 앞으로 밝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李仁濟委員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民主正義黨의 朴燾太委員님 訊問하여 주십시오.

訊問이 許容된 時間은 30分입니다.

○朴燾太委員 오늘 마지막 質問입니다.

제가 열두번째 나오기 때문에 이미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대충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整理하는 그런 意味에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證人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까 證人께서는 初期에 過剩鎮壓이 있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證人의 親知 또는 地域機關長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證人께서는 즉시 隸下部隊長들에게 앞으로는 過剩鎮壓을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嚴命을 내렸다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證人 尹興禎 맞습니다.

○朴燾太委員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것

이 5월19일에 그렇게 했는데 아까 證人의 發言을 들으니깐 그 뒤로부터는 우리 戒嚴軍들이 光州市民들을 대하는 것이 아주 옛날과 달라져서 매우 태도가 공손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證人 尹興禎 冊에서 제가 그런 句節을 보고 그것은 압니다.

○朴燿太委員 아니 指揮하신 분이 어찌 冊만 보았다고 그러십니까?

○證人 尹興禎 아니 당시에는 제가 그것을 몰랐지요.

○朴燿太委員 그러면 過剩鎮壓을 할 때는 親知나 혹은 地域機關長들로부터 抗議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態度가 달라졌는지 안달라졌는지 證人이 確認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證人 尹興禎 그런 情況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점점 擴大되는데 그 결과도 제가 確認을 못할 정도로...

○朴燿太委員 冊에는 보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은 나중에 지금에 와서 요새 보니까 그런 것을 봤다 이거지요.

○朴燿太委員 冊에는 보니까 過剩鎮壓이 많이 누그러졌다 말하자면 柔해졌다...

○證人 尹興禎 戒嚴軍의 態度가 달라졌다 하는 句節이 20日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朴燿太委員 그렇게 달라졌는데도 왜 事態는 점점 惡化되고 示威는 더욱 과격하게 되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燿太委員 글썽 最高 指揮官께서 現場에 계셨는데 자꾸 모른다고 그러니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까 初期過剩鎮壓에 대한 그 責任所在은 누구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證人 尹興禎 責任所在은 저에게도 있겠지요.

○朴燿太委員 또요?

○證人 尹興禎 31師團長한테도 있고...

○朴燿太委員 31師團長이 누구십니까?

○證人 尹興禎 鄭 雄議員이지요 또 大隊 大隊長...

○朴燿太委員 아까 自衛權 말씀을 여러번 하셨고 우리 同僚委員들도 많이 質問을 했는데

軍이 가지고 있는 自衛權이라는 것은 上部에서 그것을 발동해라. 행사하라 이렇게해서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까?

○證人 尹興禎 그렇지가 않습니다.

○朴燿太委員 上部의 지시가 있건 없건 法에 의해서 모든 附帶 또 모든 個人兵士에게 각각 고유되어 있는 그러한 자기 防衛의 權限이지요. 그렇지요?

○證人 尹興禎 예.

○朴燿太委員 그러니까 이 自衛權을 발동하는데 있어서는 上部에서 발동해라 발동하지 말아라 할 성질의 것도 못 되지 않습니까?

○證人 尹興禎 아무 上級部隊에서 지시가 없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兇正計劃은 거기에 세부 협조 사항에 發砲는 命에 의해서 하라하는 지시가 내려와 있었읍니다.

○朴燿太委員 그러면 그런 命이 있었다고 해서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上部의 결재를 받고 난 뒤에 發砲를 합니까?

지금 당장 生命에 身體에 危害가 급박하게 지금 닥쳐왔는데 그럼 잠깐 기다리라 내가 결재받고 와서 당신하고 어떻게 防衛를 하든 저 내가 自衛權 행사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兇正計劃에 실령 그러한 發砲關係가 自衛權行使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주의를 촉구한다고 그럴까 유념하라는 뜻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證人 尹興禎 저도 自衛權에 대해서는 사실 그 情況에 의해서 긴급할 때에는 그 戰鬥單位部隊의 指揮官의 命令에 의해서 自衛權이 행사될 수 있다고 봅니다.

○朴燿太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또 個人인 경우에는 個人이 자기가 任務遂行하다가 또 자기 신변에 목숨에 위급함을 당하였을 때는 武器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上官 허가말고 안 말고 그것은 軍人뿐만아니라 우리 一般國民들도 다 가지고 있는 自衛權입니다. 正當防衛... 正當防衛權은 누구에게도 다 許容되어 있는 것입니다.

○證人 尹興禎 그런데 衛戍令하고 軍人服務規律은 그것은 自衛權을...

○朴燿太委員 범위가 좀 넓지요?

○證人 尹興禎 制限한 것입니다.

○朴燿太委員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正當防衛보다 조금 개념이 넓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證人 尹興禎 아닙니다. 正當防衛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남용이 되지않도록 그「케이스」를 명확히 指定해 준 한個의 오히려 규제하는 條項들입니다.

○朴燿太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鄭 雄將軍이 師團長으로 계시는 31師團으로부터 自衛權 發砲建議가 왔을 때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지요? 아까 發砲建議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發砲命令...

○證人 尹興禎 그 發砲命令이라는 것이 武器庫에 대한 보초에 관한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朴燿太委員 당연히 그것은 證人에게 報告하고 허가받고 안받고 할 것도 없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이래가지고 證人은 그것 뭐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지요?

○證人 尹興禎 예.

○朴燿太委員 그러니까 自衛權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디 戒嚴司令官이나 어디 國防部長官이나 혹은 軍司令官이 發動해라 해서 發動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自衛權이 마치 누가 發砲命令을 해라 이래서 비로소 생기는 權利인 것처럼 자꾸 너무나 혼란스럽게 이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整理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月18日 그러니까 光州에서 民主化運動이 아주 격렬하게 시작하니까 武器가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2軍司令部로부터 豫備軍에 있는 武器를 回收해서 軍部隊에다가 保管시키라 이런 命令이 떨어졌지요?

○證人 尹興禎 예.

○朴燿太委員 그런데 그 命令을 履行을 했습니까 완전하게... 못하셨다고 그랬지요? 市內 것은 하고... 제가 時間節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市內는 대충하고 光州市外는 못했는데 못한 이유는 兵力이 모자라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朴燿太委員 그런데 아까 證人 말씀은 空輸部隊의 원조도 받을 필요도 없이 그런 명은 한 정도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18日 바로 이것은 戒嚴이 擴大된 다음날입니다. 다음날이 아니라 그날 새벽에 戒嚴이 擴大戒嚴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날 指示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武器回收를 못시켰습니까?

證人 말씀은 空輸部隊가 올 필요도 없이 狀況이 충분히 戰敎司 兵力과 31師團兵力으로써 光州의 治安을 유지할 수 있다 더우기 警察만해도 충분하다 이었는데 어떻게 그날 떨어진 이 武器回收命令을 갖다가 履行을 못했습니까? 그것은 조금 前後가 안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證人 尹興禎 제가 아까 兵力을..... 나오는 것이 기정 사실이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했지 兵力이 필요없다고 戰敎司兵力으로만 가능하다는가 이런 얘기는 제가...

○朴燿太委員 아 그랬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런데 武器回收는 제가 알고 있기에 鄉土師團長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61訓練團長도 열심히 했는데 光州市內에 武器만 생각하다보니까 外廓에 있는 都市의 中小都市의 武器가 警察이 조치가 좀 잘 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被奪을 많이 당했지 않았느냐...

○朴燿太委員 警察管理의 豫備軍에 있는 武器回收 責任도 역시 軍에 있는 것이지요? 證人의 責任下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證人 尹興禎 回收責任입니까? 回收責任이 무엇입니까?

○朴燿太委員 2軍으로부터 回收하라는 命令이 下達되지 않았습니까?

그 命令을 이행할 責任者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證人 尹興禎 31師團長이지요.

○朴燿太委員 31師團長입니까? 그러면 이 武器를 완전히 回收 못 한 것은 31師團長의 責任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證人 尹興禎 그 31師團長의 2次的인 물론 責任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지로 그 武器를 被奪당한 책임은 그 警察 武器庫의 戰場長 또는 武器庫를 責任지고 있는 管理의 責任者 이런 사람들의 1次的인 責任이.....

○朴燾太委員 1次的인 責任이 있고 그 사람들은 31師團長의 命令을 받을 그런 地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31師團長이 武器回收하러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不服從한다든가 저항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더우거나 戒嚴이니까... 그렇지요? 제가 묻는 것이 너무 自명한 것인데

아까... 이것도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31師團長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31師團에 配屬되어 있던 空輸團 3個旅團이 5月20日자로 戰敎司...證人이 指揮하던 戰敎司로 配屬이 바뀌었지요?

○證人 尹興禎 예.

○朴燾太委員 그 5月20日 이후에도 31師團은 마치 아까 보니까 作戰을 전혀 못하고 전혀 部隊로서 技能을 發揮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하는데 31師團은 비록 旅團 兵力이 빠졌다 하더라도 自體 兵力으로써 끝까지 作戰도 遂行할 수 있고 소위 그 部隊으로써의 任務를 할수 있는 것이지요?

○證人 尹興禎 그렇죠.

○朴燾太委員 그래서 證人이 그 戒嚴分所長을 그만 두신 뒤에까지도 鄭 雄將軍이 指揮하시는 31師團長이 그대로 光州地域의 治安을 擔當했지요?

○證人 尹興禎 光州地域에 대한 治安責任은 아마 鎮壓作戰 후에는 擔當했으리라고 저는 推理를 해 봅니다. 제가 그것은 잘 모르지만...

○朴燾太委員 그러니까 部隊로서의 技能을 계속 維持했느냐 안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證人 尹興禎 했을 겁니다.

○朴燾太委員 예. 아까 최초로 發砲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날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李海瓚委員이 質問하신 그 내용은 이 光州事態가 發生한 뒤에 5月20일까지는 별 發砲도 없었고 따라서 死傷者도 死亡者... 傷은 없었습니다. 死亡者도 거의 없었는데 5日21日에 들어와서 그날 午後 1時30分에 道廳 앞에서 비로소 戒嚴軍과 市民이 衝突이 돼서 大規模의 發砲가 있었고 거기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 이래서 公式적으로는 5月21日이 첫 戒嚴軍으로서의 發砲를 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質問을 하였고 아까 또 李仁濟委員께서는 그 하루 앞인 5月20日 저녁에 軍人들이 新譯 앞에서 發砲를 해서 10餘名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公式記錄을 전부 보고 그러니까 戰鬪詳報도 보니까 5月20日 그러니까 譯앞에서 戒嚴軍이 發砲를 했다는 것은 직접 사람에게 대한 發砲가 아니고 자기들이 안전하게 後退를 하기 위한 空砲여서 아무 死亡者가 없었다. 이렇게 公式記錄上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公式적으로는 5月21日 道廳앞에서 午後 1時30分에 비로소 市民들과 戒嚴軍이 충돌해서 많은 市民 軍의 死傷者가 생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尹興禎 제가 여기에서 그 判斷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分의 主張에 대한 정말 真相調查가 저는 先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燾太委員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우리 同僚委員 자꾸 舉名을 해서 미안합니다라는 李海瓚委員께서 質問하시기를 最初에 武器를 被奪당한 것이 和順 派出所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서부터 거기에 1時35分경에 武器를 빼앗아가지고 光州로 오려면 한時間정도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光州에는 2時半 이후에 도착을 하고 따라서 道廳앞에 그날 벌어진 1時半 부터 벌어진 그 戒嚴軍과의 충돌에는 그 武器를 使用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辛基夏幹事, 文東煥委員長과 司會交代)

그런데 和順에서 방금 이런 李委員의 말씀을 듣고 지금 光州에서 전화가 왔다면서 우리 同僚委員이 지금 쪽지를 주는데 보니까 和順에서 光州 오는데 「택시」타면 15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길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지금 記錄을 보니까 和順에서 제일 먼저 武器를 被奪당한 것이 아니고 羅州 錦城派出所에서 제일 먼저 武器를 被奪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月21日 그러니까 바로 道廳 앞에서 그 大規模 衝突이 있던 그 날

12時頃に 羅州 錦城派出所에서 칼빈小銃 510挺 LMG自動小銃 機關銃이지요. 4挺 M-1 255挺 AR 4挺 實彈10萬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서 여기에서 12時에 이런 武器가 被奪당했다면 충분히 光州에 한 時間後에는 到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地理上으로.....

○證人 尹興禎 和順이 15分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지요?

○朴燿太委員 예.

○證人 尹興禎 15分은 조금 안될 것 같은데 요.

○朴燿太委員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羅州에 ...

○證人 尹興禎 羅州는 오히려 그 당시 道路가 艱難했습니다.

○朴燿太委員 한 시간 안에는 光州에 올 수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더 빠리 올 수 있지요.

○朴燿太委員 마지막으로 제가 그날 제일 첫 發砲가 있었다는 道廳 앞에서의 그러니까 5月21日 午後 1時30分경에 戒嚴軍하고 市民들하고 충돌한 그 첫 장면을 지금 公式記錄에 의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報告를 받으신 기억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날 1時30分경에 裝甲車 버스 「트럭」등을 앞세운 群衆이 道廳 앞에 약 5萬 정도 雲集을 했습니다. 雲集해가지고 戒嚴軍하고 對峙를 하고 있는데 裝甲車 한 수가 갑자기 戒嚴軍쪽으로 돌진해와서 아까 李海瓚委員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戒嚴軍 한 사람이 그 裝甲車에 깔려서 죽는 그런 事故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다시 「버스」 한 수가 戒嚴軍쪽으로 오면서 똑같이 그냥 戒嚴軍을 향하여 돌진하기 때문에 이때 將校들만 武裝을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士兵은 銃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實彈이 支給이 안되었기 때문에 將校들만 實彈을 15發씩인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將校들이 「버스」를 향해서 集中 射擊을 했다 自衛의 수단으로써 ...

그렇게 하자 근처에 있는 전일「빌딩」 약간 좀 떨어져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 11層 옥상에서 示威隊들이 LMG 2대를 設置해

가지고 戒嚴軍을 향해서 應射를 했다 이렇게 해서 相互交戰形態로 되어서 많은 死亡者가 發生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狀況을 報告 받은 적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렇게 精確한 報告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朴燿太委員 그리고 證人께서는 22日 10時에 指揮權을 移讓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니 그 뒤의 그 狀況은 잘 모르겠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朴燿太委員 아까 우리 李海瓚委員이 質問하실 때 鄭鎬容 당시 特戰司令官이 마치 證人을 같이 있으면서 指揮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은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證人은 묵묵 不答을 하셨습니다.

○證人 尹興禎 아니에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요.

○朴燿太委員 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辛基夏委員 委員長! 아까 本委員이 幹事會議 도중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同僚委員의 證人에 대한 訊問課程에서 1980年5月19日 4時경에 光州 高等學校 近處에서 空輸部隊 軍人の 發砲에 의해서 당시 朝大附高 2學年生 김영찬군이 死亡하였다고 말씀하셔서 市中에는 김영찬군이 死亡한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被害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김영찬군은 당시에 死亡한 것이 아니라 당시 銃傷을 입었지만 治療後 光州에 居住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發言權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상으로 오늘의 聽聞會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證人 수고하셨습니다.

(3時39分 散會)

○出席委員

- | | | |
|-------|-------|-------|
| 文 東 煥 | 權 海 玉 | 金 吉 弘 |
| 朴 燿 太 | 辛 卿 植 | 安 榮 基 |
| 李 光 魯 | 李 肯 珪 | 李 道 先 |
| 李 敏 燮 | 鄭 東 鎬 | 鄭 昌 和 |

金 泳 鎮	辛 基 夏	李 海 瓚
趙 贊 衡	趙 洪 奎	崔 鳳 九
朴 泰 權	吳 景 義	李 仁 濟
張 石 和	金 文 元	

○委員아닌出席議員

金 元 基 鄭 祥 容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陳 在 勳
立 法 審 議 官	金 永 善

○出席證人

鄭鎬溶

尹興禎(전남북제업분소장)